



제105주년 원정대성사 탄신대제 봉행

종조님의 대원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연화장을 열자



불교충지충 종조 원정 대성사 제105주년 탄신대제가 1월 29일 원정기념관과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예하를 모시고 지성통리원장 및 서울 경인교구 스승과 교도, 유가족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개식사에 이어 원정 대성사의 행장 소개, 스승 및 교도들의 헌화와 훈향 정공, 효강 종령 예하의 교유문 및 법어,

지성통리원장의 봉행사, 김은숙 서울 경인 신정회장의 발원문 낭독의 순으로 이어졌다.

효강 종령예하는 법어를 통해 “원정종조님의 유훈을 받들어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에 의지하여 스승과 교도가 합심과 단결로써 수많은 간난신고를 헤쳐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충지충이 한국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로 웅비할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달려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며 지난날의 영화를 되새기며 자위하는 그런 종단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풍조를 주시하고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으로 명실상부한 생활불교종단으로 거듭나도록 심기를 일전하여야 합니다.”며 종조님의 뜻을 받들어 종단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하였다.

지성 통리원장은 봉행사에서 “원정 대성사님의 대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종단은 종조님의 사상과 교상의 연구에 매진하여 종조님께서 제창하신 재생의세의 정신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충지충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며 종조님의 대원을 성취하기를 서원했다.

김은숙 서울 경인 신정회장은 “복지구족하신 부처님과 대비원력 깊으신 종조님께서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 속히 대비로자나 부처님의 영원한 진리와 깨달음의 빛을 밝혀 주옵소서”며 종조님 전에 간곡히 발원하였다.

서울 경인 마니 합창단의 축하를 끝으로 제105주년 원정 대성사 탄신대제를 마쳤다. 법회 후에는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하여 동참한 스승 교도들은 원정기념관에 전시된 종조님의 유품들을 관람하며 평소 검소한생활과 수행정진에 한치의 불려움이 없던 모습을 되새겼다.

원정기념관=김종열 기자

“민들레처럼 널리 퍼져 교화발전에 전념하자”

충기41년 신년하례법회 및 기로스승 진원식 봉행



충기41년 임진년 신년하례법회가 1월12일 총본산 서울 충지사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는 효강 종령예하를 모시고 지성 통리원장과 종단 집행부를 비롯한 각 사원의 주교, 기로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 했다. 인선 총무부장의 집공으로 열린 법회는 원정기념관 참배를 시작으로 종령 예하의 헌화, 승단 하례, 교도일동 하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효강 종령예하는 법어에서 “우리 들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들레는 구덕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적스럽게 모진환경을 이겨 내는 것이 일덕(一德)이요, 이덕(二德)은 질긴 생명력을 지녔다는 것이요, 장유유서(長幼有序)를 행(行)하는 꽃, 꽃이 피고 지면 또 다른 한 송이가 핀다하여 삼덕(三德)입니다. 천기를 알아 꽃을 피우는 것이, 선과 악을 헤아린다 하여 이를 사덕(四德)이라 했습니다. 오덕(五德)은 꿀을 벌들에게 많이 준다 하여 정이 많은 것이고, 육덕(六德)은 새

임진년 새해 다짐을 섰했다.

이어 지성 통리원장은 “새해 불공을 용맹 정진으로 마친 스승과 교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임진년에도 서원하신 모든 계획들이 원만히 이루어 지시기를 서원합니다.”며 인사말을 했다.

신년하례법회 후에는 기로스승 진원식이 이어졌다. 이번에 기로스승으로 진원된 흥국사 밀공정 전수, 실보사 정병계 전수, 충지사 선도원 전수는 효강 종령예하에게 가사를 반납하고, 새로이 기로스승 금가사를 수여 받았다. 효강 종령예하는 법어를 통해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종조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정진과 교화에 매진하신 스승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새로 진원한 기로 스승님들을 치하했다.(관련기사 2면)

충지사=김종열 기자

불교충지충 제11대 종령에 효강 대종사 재추대



그동안 시행 해 온 '새종풍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정통밀교종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종단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불교충지충은 2012년 승단총회를 1월 12일 오후2시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승단총회는 오는 2월 16일로 임기가 끝나는 불교충지충 제10대 효강 종령의 후임을 선출하는 선거가 열렸다. 종령 선출을 위한 이번 승단총회는 전국의 스승 전원(기로스승포함)이 참석하였다.

지성 통리원장의 주제로 열린 총회에서는 제11대 종령으로 현 효강 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재추대하고,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고 마쳤다. 제11대 종령의 임기는 오는 2월 17일부터 6년간이다.

제11대 종령으로 재추대된 효강 대종사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중앙교육원장, 법장원장, 통리원장 및 불교티브이, 불교방송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효강 대종사의 재추대로

김종열 기자

평화적 중생구호에 앞장서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법회 봉행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가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보선스님은 개회사에서 “세계불교도들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드넓히는 전법세상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법어에서 “올해에는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두 번의 선거를 비롯해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들이 기다리

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은 언제나 눈 밝은 수행자처럼 깨어 있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축원에 이어 부회장이인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와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은 기원사에서 “새해에 우리 민족에게 내재된 기성과 발원은 대립을 넘어 소통과 화합의 힘을 이끌어왔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리라 믿어집니다.”라고 밝혔다. 법회에는 충지충 지성통리원장, 인선 총무부장, 화령 중앙교육원장, 밀교 연구소 법경정사, 범등 충지사 주교, 벽룡사 법일 주교, 밀인사 원당 주교, 재단사무국장 법선 정사와 종단 협 주요 종단 총무원장 등 종단지도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광영진 1차관, 김용환 2차관, 등이 동참했다.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세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상반기 49일 불공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찾아 참회하고, 조상으로부터 쌓아 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 ◆ 일 시 : 충기 41년 2월 20일~ 4월 8일
- ◆ 대 상 : 충지충 교도 및 모든 불자
- ◆ 장 소 : 충지충 전 사원



불교충지충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불교 주요 종단 내부 개혁과 전통문화 계승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불교 주요 종단의 수장들이 신년기자회견을 가지고 불기 2556년 주요 계획을 발표하였다.

조계종은 1월 17일 불교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주요 보좌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승스님은 올해 조계종의 슬로건으로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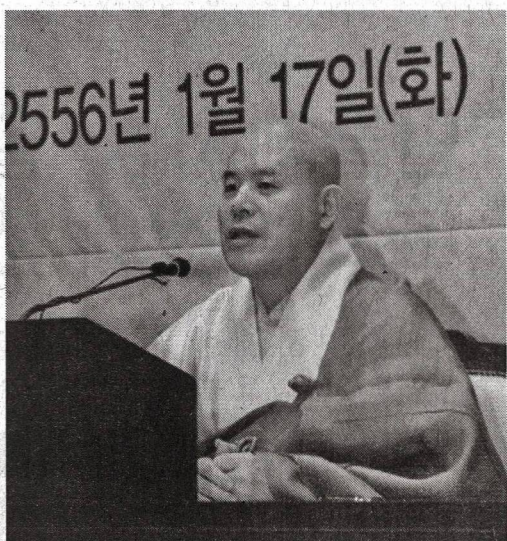
조계종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여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만행모금' 사업을 통해 연 3,000여명에 대한 기금 및 후원물품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청소년 내 꿈 찾기' 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합리적 개혁을 위한 쇄신과 중흥을 위한 '대중공사'와 '천일기도', '쇄신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대중공사'는 중앙과 직할 · 교구 · 지역사찰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형 '웹 대중공사'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천일기도'는 한반도 생명 평화를 위한 천일기도, 시민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시민초청 무차대회',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부대중 아난법석'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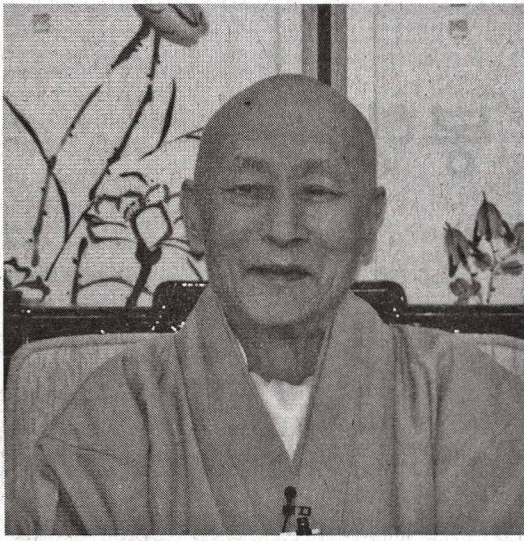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전개할 예정이다.

'쇄신전략'은 사찰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영사찰과 직할교구 공찰의 재정공개를 확대하고, 전통과 생태의 조화로움 사찰 불사를 위해 '불사관리위원회'를 상반기 내에 신설한다.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종단 출범 50주년 기념사업과 종단 불교의 세계화, 사회적 공동성 실천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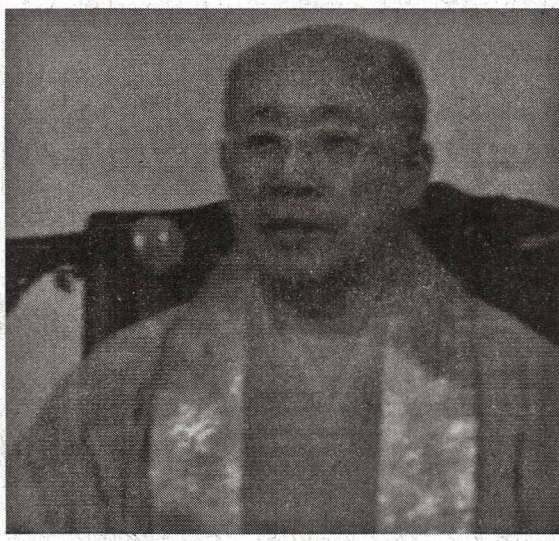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1월16일 전통문화 전승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원로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로원 창설, 태고문화축제, 봉원사 태고사 용궁사 성역화 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등 2012년 종단 중점 사업을 밝혔다.

종조 태고보우국가 선양사업을 위해 종조 태고보우국가 탄신일을 기념하는 다례제에 맞춰 법교경연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정사

시,서화 공모전, 문화명인 부스 운영, 차 시연회, 차 음악연주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촌 봉원사에 영산재 전수관 건립 및 방재방역선 확정 및 주변 일제정비, 만세루와 일주문 건립 등 봉원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화재 및 도난 등 재난 예방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4개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최근 종단 내부의 문제를 의식하며 "내부적인 과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후유증을 남기며 오해를 낳는다"면서 "지혜를 모아서 원활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정사는 1월30일 총인원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진각종은 종단 문화의 역량을 점검하고 대중문화로 발전 가능한 불교문화를 생성하기 위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전승문화회관의 입주는 부처님오신 날을 전후해서 개관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포교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스리랑카 현지 교화 불사로 '회당학교법원'의 중학교를 개원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올해 10억원을 지원 받은 국제문화체험관 및 교육관을 진각문화전승원 좌측 1,000여 평의부지에 지하2층, 지상5층의 규모로 착공을 한다.

북지분야에서는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밀각심인당 일대에 20세대 규모의 '부자보호시설'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하고, 10월경 입주할 예정이다.

김종열 기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제32차 정기총회 봉행

-2012년 주요사업 및 신입 회원 승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스님)는 1월 18일 서울 A W컨벤션센터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33차 대회 개최 등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정기총회는 교류협의회 이사장 천대종 정산 스님, 부회장 태고종 인공 스님과 총지종 지성 총무원장, 인선 총무부장 등 상임이사 51명 중 36명(위임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올 사업으로 한 · 일불교문화교류 제33차대회, 제7차 양국 여성교류대회, 제6회 무차만발공양, 추모사업, 위령사업, 문화재환수사업 등을 승인했다.

제33차 대회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시코쿠에서 열리며, 세계평화기원법회, 학술발표회, 성지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제7차 한 · 일 양국 여성교류대회는 3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그리고 지난해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으로 사망한 영가들의 1주기를 맞아 3월 9일 일본 가마쿠라(鎌倉) 광명사에서 위령재를 봉행한다. 이와 함께 일본 정토종 우천사(祐天寺)에 봉안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된 한국인(무연고)의 유골 봉환사업과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문화재의 환수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협의회는 사업 승인에 앞서 종조 스님(조계종 제주 제석사주지)과 양영자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신도회 총괄 운영위원장을 신임이사로 선출했다.

AW컨벤션센터=김종열 기자.

교화발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기 41년 기로스승 진원식

1월 13일 총본사 총지사에는 교화의 임무를 마치고 기로스승으로 진원하는 세분의 스승님들을 축하하기위해 많은 교도들이 함께했다.

기로스승으로 진원하는 흥국사 밀공정 전수, 실보사 정법계 전수, 총지사 선도원 전수는 그동안 전국의 교화 현장에서 원정 대성사의 입교개종의 대원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다.

진원 스승을 대표하여 실보사 정법계 전수는 "퇴임은 마침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또 다른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자연무위로 돌아가 조용히 세상을 감상하며 나 자신을 더욱 되돌아보는 수행생활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기로스승으로서의 품위와 승자로서의 덕행을 더욱 갈고 닦아 모범되는 선배스승으로 거듭나가기를 약속드립니다. 현직을 떠나지만 승단의 일원으로서



종단발전과 중생교화라는 대 사명을 잊지 않고 용맹정진 하고자 합니다."며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세분의 스승님들은 새로이 수여 받은 기로스승 금가사를 수하고 동료 스승님과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념 촬영을 했다.

비록 교화의 현장은 떠나지만 불교 총지종의 스승으로 품위를 지키며, 즉신성불의 그날 까지 용맹정진 할 것을 다짐했다. 총지사=김종열 기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무명씨	12/26	10,000
개천사	손 식	12/28	50,000
개천사	이희권	1/3	10,000
개천사	강순시	1/13	10,000
관성사	황성녀	12/27	10,000
관성사	박현숙	12/27	10,000
관성사	김봉기	12/29	10,000
관음사	신막심	1/17	10,000
관음사	정숙정	1/19	20,000
관음사	이정희	1/19	10,000
국광사	장명기	1/11	50,000
국광사	주옥희	1/19	50,000
기 로 의 강		12/27	50,000
기 로 대 관		1/19	10,000
기 로 대자행		1/19	10,000
기 로 밀공정		1/19	10,000
기 로 범수원		1/19	10,000
기 로 범장화		1/19	10,000
기 로 범지원		1/19	10,000

기 로 불멸심	1/19	10,000
기 로 사후화	1/19	10,000
기 로 상지화	1/19	10,000
기 로 수증원	1/19	10,000
기 로 총지화	1/19	10,000
단음사 천 공	1/5	4,000
단음사 무명씨	1/16	10,000
단음사 범연지	1/16	10,000
덕화사 하순옥	12/26	5,000
덕화사 하순옥	1/9	5,000
덕화사 시 정	1/19	10,000
덕화사 원만원	1/19	10,000
만보사 한미숙	12/26	10,000
만보사 공철봉	12/26	20,000
만보사 정덕순	12/28	20,000
만보사 공철봉	1/2	10,000
만보사 박선희	1/2	10,000
만보사 최옥순	1/4	10,000
만보사 민순분	1/12	60,000

만보사	정덕순	1/17	10,000
밀인사	이혜성	12/27	20,000
밀인사	정정희	12/29	5,000
밀인사	이혜성	1/10	20,000
밀인사	이희원	1/11	10,000
밀인사	이채원	1/16	10,000
밀인사	이연주	1/16	10,000
밀인사	이재갑	1/16	10,000
밀인사	성자영	1/21	20,000
밀인사	원 당	1/21	10,000
밀인사	묘심해	1/21	10,000
밀인사	복지원	1/22	10,000
백월사	김현중	12/26	10,000
백월사	진 평	1/17	5,000
법천사	김정숙	12/27	5,000
법천사	김정숙	1/20	5,000
벽룡사	양지현	12/28	10,000
벽룡사	양정현	12/28	10,000
벽룡사	무명씨	1/4	20,000

부산경남	신인록	1/13	1,000,000
지회장			
선립사	심지장	1/17	10,000
선립사	정복지	1/17	10,000
선립사	수 정	1/18	20,000
성화사	무명씨	1/12	85,000
수인사	김봉기	12/27	10,000
수인사	장영택	1/2	50,000
승천사	원 봉	1/18	10,000
승천사	지선행	1/18	10,000
시법사	진여행	12/28	10,000
시법사	진여행	1/4	10,000
실보사	이순옥	1/2	10,000
실보사	조순애	1/11	100,000
실지사	정경자	12/26	10,000
실지사	송우섭	1/17	5,000
운천사	반야화	1/2	10,000
운천사	이성미	1/12	50,000
정각사	이정선	12/29	5,000

정각사	김문수	1/12	10,000
정각사	이정선	1/13	5,000
정각사	구정희	1/18	20,000
정각사	박희정	1/18	50,000
정각사	홍귀선	1/18	30,000
지인사	허성동	12/27	20,000
지인사	이형자	1/4	20,000
지인사	허성동	1/12	30,000
지인사	승효제	1/18	10,000
혜정사	조성기	12/27	20,000
화음사	강순란	1/3	5,000
화음사	박옥자	1/12	10,000
흥국사	지 정	1/18	20,000
	임동수	12/26	30,000
	안효정	12/27	20,000
	이혜원	12/30	5,000
	서남교	1/4	10,000

12월26일부터 1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제2회 불교 총지종 겨울스키 수련법회 봉행

전국에서 약 100여명 동참, 신행체험 및 스키활동



수준별로 나누어 스키강습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에는 보드 체험을 위한 클래스를 개설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둘째 날에는 아침불공을 시작으로 오전, 오후 스키 강습에 이어졌다.

저녁 시간에는 총지종 소개와 불교 교양강의가 만보사 승원정사의 주재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불교총지종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불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8가지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후 이어진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 시간에는 다소 서먹서먹했던 참가자들이 웃음으로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장기자랑에는 3팀이 출전하여 가요, 댄스 등을 선보여 숨은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마지막 날 오전 스키 활동을 마치고 회향식에서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화합하고 어린 동생들을 잘 이끌어 준 여찬호, 곽수진, 송호준, 강진영 학생에게 총무부장 인선정사가 상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2박 3일간의 즐거운 추억을 가슴에 가득안고,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관련화보 12면)**

황성=김종열기자

불교 총지종 통리원이 주최하는 제2회 불교 총지종 겨울스키 수련법회가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대성우리조트에서 봉행되었다.

전국의 사원에서 참가 신청을 한 약1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가하여 협동심과 단결심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바라밀 공부방 학생들도 참가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총지종의 수행법을 체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26일 오후 사회부장 우인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입제식에서 지성 통리원장의 대회사에 대독한 인선 총무부장은 "학교와 학원, 공부와 시험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며, 즐겁고 보람찬 수련법회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며 참가한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협동심을 최우선으로 생활하기를 당부했다.

입제식이 시작하기 전에 실보사 덕광정사는 처음 불공을 접하는 참가자를 위해 간단한 불공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방배정과 장비를 지급받은 참가자들은

한해의 서원을 7일간의 용맹정진으로 세우다

충기41년 새해불공 전국 사원에서 원만 회향

불교총지종 전국사원에서는 임진년 소원 성취와 재난 소멸, 가정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새해불공이 봉행되었다.

1월 2일 입제식에서 전국의 각 사원 주교이 대독한 신년법어에서 효강 종령예하는 "사회적 병고를 치유하는 길은 부처님의 대비정신을 널리 펼쳐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실천해나가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남이 아니므로 돌이 아니요 하나라는 동체대비의 정신만이 사회와 국가의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고통없는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동체대비심으로 대비만행을 실천하여 빈곤에 시달리고 소외된 모든 중생들을 불법으로 구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비정신의 실천을 강조했다. 전국의 교도들은 이번 새해불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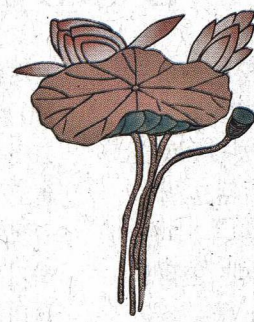
통해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임진년 새해에 이루고자하는 서원을 바로 세우는 용맹정진을 하였다. 1월 8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 까지 이어진 칠정진기도에서는 어느 누구하나 흐트러짐 없이 염송정진에 임하여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세우신 정통밀교의 전통을 이어갔다.

총지사=김종열 기자.

밀교연구소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출간

임종에서 49재까지 불공을 상세히 해설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는 범공종사와 범경정사 공동으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을 출간하였다.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은 거쳐야하는 죽음은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통과의례이다.

불교에서는 윤회적 입장에서 인생에서 명이 다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도 존재하므로 또 다른 시작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불교는 죽음을 이르렀을 때 생의 끝이 아니므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하여 바른 지혜로써 명을 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열반경에는 '마지막 숨을 맑은 정신으로 마치는 사람은 내세도 맑다.'고 한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러 맑은 정신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산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고, 불공을 올려 고른 호응과 맑은 정신으로 생을 마감하게 해야 한다. 돌아가신 후에는 망자를 위해 49일간 정성을 다해 불공을 올리는 49재는 매우 중요하다. 이 불공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망자의 극락왕생 뿐 아니라 다음 생에 어떤 인연을 맺게 될지 결정된다.

이 책은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던 죽음과 관련된 상장례 절차와 49재 천도의식을 쉽고 간단하게 풀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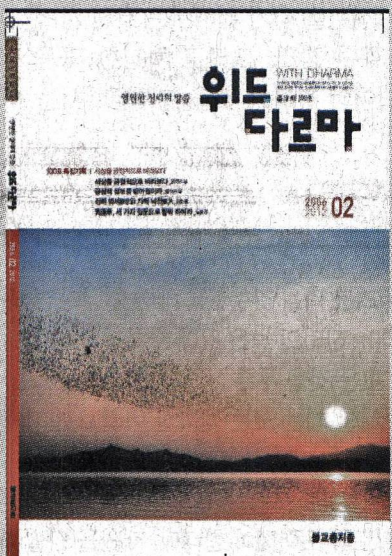
교도들과 유족들에게 친절한 안내서로 도움이 될 것이다. 비매품으로 각 사원에서 받아 볼 수 있다.

김종열 기자

총지종 불교 전문 교양지

월간 『위드다르마』 통권 100호 출간

고품격 불교 전문 교양지로 자리매김



불교총지종 월간 『위드다르마』가 통권 100호를 출간했다. 총기33년(2003년) 10월 창간호를 낸 『위드다르마』는

그동안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고품격 불교 전문 교양지로 자리매김했다. 전국의 사찰, 병원, 군법당, 교도소, 학교 및 총지종교도와 일반 불자들에게 법보시로 제공되었다.

통권 100호를 맞아 『위드다르마』 발행인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정사는 "처음에는 작고 불품없는 소박한 형태의 책이었지만 100호를 맞는 지금의 『위드다르마』를 보니 또 한번 그날의 기쁨이 밀려오는 듯합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거목이 되고 그 나무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편히 쉬 수 있듯이 『위드다르마』가 처음은 작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거목이 되어 많은 사람이 청량한 그늘 아래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며 보다 알찬 내용의 불교 전문 교양지로 발전을 다짐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는 축하메시지를 통해 "『위드다르마』는 부처님 법과 함께 하는 우리 불자의 삶을 기록하고 전하는 우리 시대의 불교의 살아 있는 가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다르마, 법(法)은 우리의 삶이 연기적 존재의 무한한 관계를 이끄는 실상이자 미혹의 전도몽상(顛倒夢想)을 깨는 실천수행의 근간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다른 삶의 모습 속에 전하는 『위드다르마』는 현재라는 시간과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실상같이 비추는 '깨어 있음'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위드다르마』의 통권100호를 축하했다.

이외에도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 크리스티나 창 세계불교여성연합회장, 김종섭 한국문인협회 부회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번 특집호에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의연스님, 범상스님 등 유명한 필진들의 주옥같은 글들로 만들어졌다.

법장원=배공주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법회 봉행

1월 6일 부산 베스코 그랜드볼룸에서 2012년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가 봉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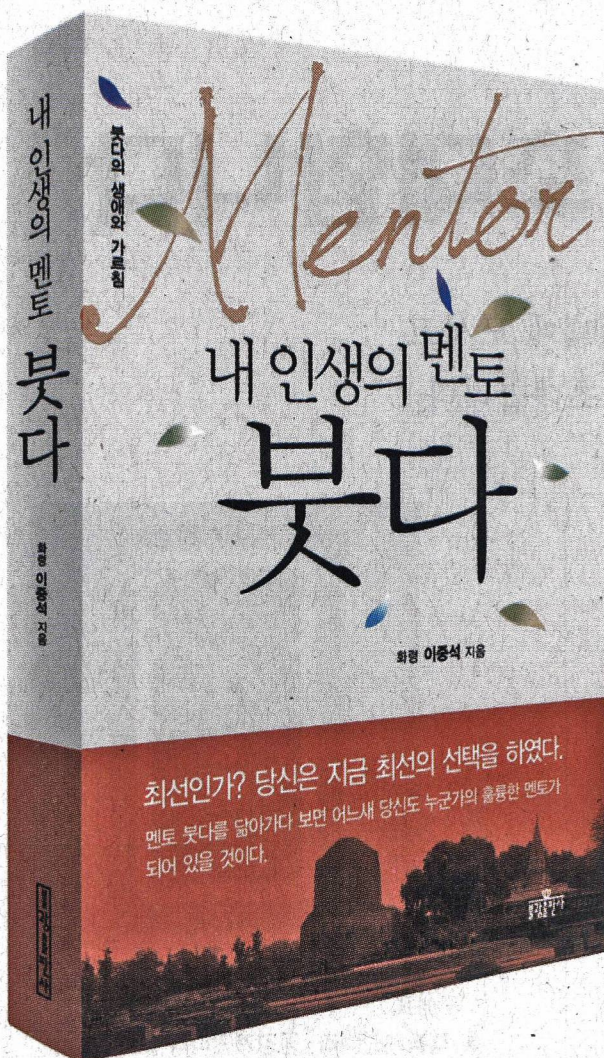
이날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에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정여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스님 및 이윤희 연합신도회 회장과 각 종단 사찰 신도 등 사부대중 2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임진년 정초를 맞아 식전행사로 영산재시연과 다리니기도를 봉행하였고 이어 신년하례회가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은 봉행사에서 임직하신 지관 대종사에 대한 묵념을 제안하여 동참 사부대중은 추념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여스님은 법어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신심이 돈독한 부산불자들이 단합하여, 한층 더 내실 있는 발전을 하는 한해가 되기를 부처님 전 서원합니다."며 임진년 한해도 더욱 단합된 연합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정각사=김윤경 통신원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자라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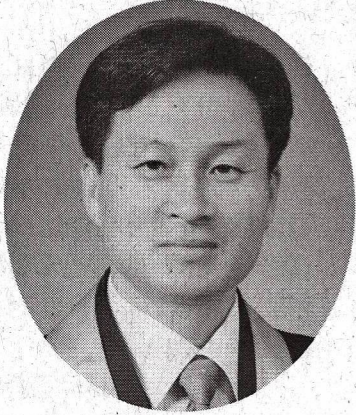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령 이충석 지음
432면 | 18,000원

내 인생의 멘토 붓다

불교의 선정 ⑦

수식관 ① 안나반나염



화령
(중앙교육원장)

마음관찰의 5가지 방법인 오정심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수식관(數息觀)이다. 이것은 자기의 호흡을 관찰하여 정신을 통일시키는 것인데, 산란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관법이다. 이 관법은 자기의 날숨과 들숨을 관찰하여 세는 것으로서, 이것에 의해 점차로 잡념을 제거하고 마음이 가라앉게 되며 따라서 정신이 통일된다. 사람이 화가 나거나 흥분하게 되면 우선 호흡이 거칠어진다. 그럴 때는 자기의 숨이 들락거리는 것을 관찰하여 세고 있으면 화가 나거나 들뜬 마음이 잠잠하게 가라앉게 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호흡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조정함으로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잡념과 망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수식관이다.

이 수식관을 경전에서는 안나반나염(安那般那念; āna-apāna)이라고도 한다. '안나'는 날숨을 가리키고 '반나'는 들숨을 가리킨다. 경전 가운데에 《안반수경(安般守意經)》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것은 안나와 반나, 즉 안만을 중심으로 한 관법에 대해 설한 경전이다. 수식관에 해당하는 이 안나반나염의 효과에 대해서 《집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안나반나염을 닦아라. 안나반나염을 몸에 익을 때까지 닦으면 몸이 피로하지 않고, 눈으로 보아 근심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게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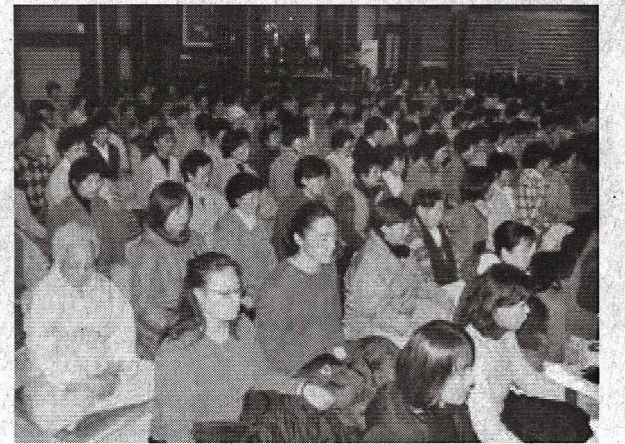
관하는 것을 따라 즐거움에 안주하게 되고, 집착하지 않는 즐거움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수식관을 잘 닦으면 몸이 피곤하지 않고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이 가라앉게 되며, 호흡과 몸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이루어져서 그 자체로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호흡을 통한 안락한 상태에서는 자연히 마음이 고요하게 되어 욕망이 가라앉으며, 욕망으로 인한 집착이 놓아져 버린다. 부처님께서 수식관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하셨다.

안나반나염은 어떻게 닦는가? 비구는 마을이나 도시에 의지하여 살면서 아침 일찍 가사를 걸치고 발우를 들고 마을에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 볼 때, 수식관을 닦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가짐이 바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이·비·설·신·의의 육근을 잘 제어하여 마음이 산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수식관을 닦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하지만 육근이 잘 제어되지 않으면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것이 모두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탐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육근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이 단정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결식을 마치고 거처로 돌아와 가사와 발우를 챙겨두고 발을 씻은 뒤 수행하기 적합한 곳으로 가 몸을 단정히 하고 생각을 매어두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사람이 설혹 일시적 성공을 거두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잘 관찰해 보면 모래위에 집을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자기 주변도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제대로 할 리가 없다. 자기 주변도 정리 못하는 사람은 빼박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 봐야 이웃에 해만 끼치지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는 일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마음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몸을 청결히 하고 단정하게 가꾸며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이목을 끈 적이 있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기인이라고는 할 만하지만 부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는 수행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런데도 무슨 무애행(無碍行)을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현혹했다. 아니 현혹했다기 보다 어쩌면 사람들이 먼저 현혹 당했는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한 때를 풍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그런 기이한 행동이나 더러운 차림새 같은 것은 결코 없다.

지혜가 있는 우리 불자들은 행여나 그런 거짓놀음에 속아서는 안 된다. 깨달았다고 해서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음행을 저지르고 거지차림으로 복치고 장구 치며 돌아다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런 짓 하지도 않는다.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서 불교를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 몸과 마음이 단정해야 수행도 제대로 되고, 또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단정하다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

한 마디로 수식관을 닦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의 몸의 청결과 주변 정리, 그리고 차분한 마음 가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들숨과 날숨의 관찰에 의하여 번뇌를 정복 몸의 청결과 주변 정리가 우선되어야

들어가 결식하되, 그 몸을 잘 보호하고 여섯 감각 기관의 문을 잘 지키며, 마음을 잘 매어 둔다. 결식을 마치면 자기 거처로 돌아와 가사와 발우를 챙겨두고 발을 씻은 뒤, 숲속이나 조용한 방이나 나무 아래 또는 수행하기 적합한 한적한 곳으로 가 몸을 단정히 하고 바로 앉아 생각을 앞에 매어 둔다. 그리고는 세속의 탐욕을 끊고 욕망을 버려 청정하게 하며, 성냄과 수면, 도기(掉擧)·마음이 흔들리는 것, 의심을 끊고 모든 의혹을 건너, 모든 옳은 가르침에 대해 확실한 자신감을 얻는다. 그리하여 지혜의 힘을 약하게 하고 장애가 되어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오개(五蓋)의 번뇌를 멀리 여윈다.

계율을 수록해 놓은 《마하박가(Mahāvagga)》에 보면, 가사를 입고 벗는 법, 그리고 그것을 개어 놓는 법, 또 발우를 씻어 보관 해 놓고 침구를 정돈하는 법 등등이 매우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주변부터 깨끗하게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주위 환경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마음공부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자기의 몸가짐은 물론, 주변이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여야 마음도 바르게 된다. 일반 사회에서도 제대로 된 가정이나 상점은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고 청결이 유지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리정돈을 잘 할 줄 모른다. 자기의 몸과 주변 환경을 바르게 가꾸지 못하고 정돈이

《마하박가》 등에 묘사된 부처님과 제자들의 생활태도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소한 물건까지도 모두 아끼고 잘 보존하며, 주위를 청결히 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식관을 닦는 데에 이렇게 가사와 발우를 챙기고 발을 씻는 것을 거론하신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 거지 차림을 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도사린 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사도의 무리이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떨어진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 입고 생활태도가 바른 사람이 도를 닦아도 제대로 닦는 것이지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서 환경을 돼지우리 같이 더럽게 해 놓고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도를 닦겠는가?

한 때에 '결례'라는 별명의 이상한 사람 하나는 거지 차림을 하고서 한 소시 한 스님인 채 하면서

과미혹을 버리고 덕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는 진리의 높은 곳에 오른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두루 살펴야 합니다. 남에게 보시할 때는 모든 집착을 버리고 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모임에 참석할 때는 깨달음을 이루어 여러 부처님의 모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난을 당할 때는 제 정신을 차리고 격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엄경 보살명난품》

정리= 최영아 위원

진리의 여율

■ 보살의 청정한 일상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보살은 어떻게 해야 사물에 흔들리지 않을 행동과 말과 생각의 청정한 삼업을 얻습니까? 보살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성취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며 각오가 굳어집니까? 보살의 가장 뛰어난

지혜, 헤아릴 수 없고 무어라 말할 수도 없는 그지혜란 어떤 것입니까? 보살은 어떻게 해야 방편의 힘과 선정의 힘을 갖추 수 있습니까?

보살은 어떻게 해야 서로 관계된 연기의 법을 알고 공삼매나 무상삼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살은 어떻게 해야 여러 천신과 용왕과 범천이 수호하고 공경하게 됩니까? 보살은 어떻게 해야 중생들의

집이 되고 구원의 손길이 되며 등불이 되고 길잡이가 됩니까? 보살은 어떻게 해야 모든 중생 가운데서 비길데 없이 뛰어나게 됩니까?"

문수보살은 지수보살에게 대답했다.

"중생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잘 물으셨습나다.

보살이 사물에 흔들리지 않을 행동과 말과 생각의 청정한 삼업을 성취한다면 그는 온갖 뛰어난 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살은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심이 없고, 부처님이 나타내신 법을 스스로 나타내며, 중생을 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모든 존재의 실상에 도달 할 것입니다. 나쁜 일은 하지 않고

두루 선한 일을 하여 모든 것에 자유자재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면 그 청정한 삼업을 성취하여 뛰어난 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살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살이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모든것은 인연에 따라 있는 것이니 아무것도 집착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섬길때는 잘 봉양하여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처자들과 모일때는 미워함이 없이 아끼고 애육의 탐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욕에 마주치면 탐욕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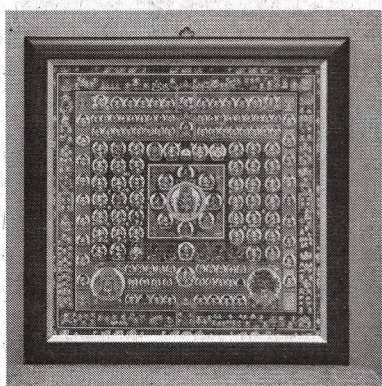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장계 만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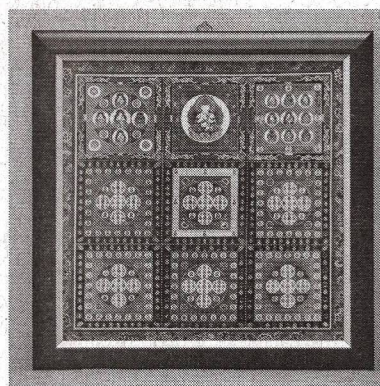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 비이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 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계 만다라>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성신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현겁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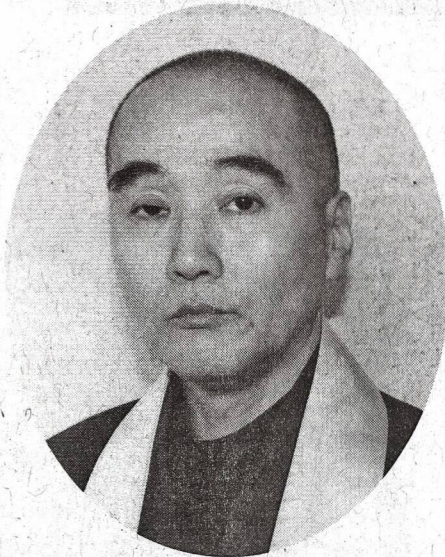


- ※ 구성표
- ▲ 태장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 set 33cm×33cm(액자포함) (30,000원)
- ▲ 가정다라니 46cm×27cm(액자포함) (27,000원)

지상설법

염송삼매로 생사 초월하다.

총지사 주교 법등



여러분, 바람에는 바람소리가 없지요? 물에는 물소리가 없고, 비에는 빗소리가 없지만 바람소리 물소리 빗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연을 만나면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인연을 만나면 바람소리가 나고, 물이 인연을 만나면 물소리가 나고, 비가 인연을 만나면 비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수행이라는 인연을 만나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생사고해를 건너 생사해탈, 생사초월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정진의 목표를 생사해탈에 두어야 합니다. 생사해탈을 목표로 해서 염송 정진해야 합니다.

임진년 새해 불공을 맞이하여 그동안 흔들림 없는 신심과 깨끗한 목과 마음가짐으로 일주일간의 용맹정진 끝에 오늘 그 고행일을 맞았습니다. 칠 일간 함께 공부하며 정진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복 짓고 정진함에 있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복 지을 때 복을 짓고, 정진할 때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복도 짓지 못하고, 정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시와 회사를 통해 복을 짓고 자신의 복 관리를 위해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되겠지요. 곡식을 얻으려면 때를 맞추어 씨를 뿌리고 재물을 얻으려면 재물 복을 지어야 합니다. 무병장수 하려면 살생업을 참회하고 불살생계를 잘 지키며 살고 방생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게로 지킬 것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후회 없는 불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반듯한 인간의 자리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안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질 때 인욕 할 수 있습니다.

내안에 할 말이 많으면 인욕 할 수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질 때까지 무아법을 수행하여 인욕을 닦아야 합니다. 무아법을 수행하여 무아법을 통달하면 그대는 저절로 인욕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할 말이 너무 많아 인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할 말이 많고, 일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이렇게 목 끝까지 할 말이 차있기 때문에 인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법은 부지런히 닦아 지니고, 불선법은 부지런히 닦아서 없애는 것이 정진의 참모습입니다.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닙니다. “선정이 없는 자리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정이 없다.”고 하듯이 선정을 닦지를 않고는 지혜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삼매를 닦아야 합니다.

삼매는 지혜의 경계

삼매 그 자체가 바로 지혜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선재동자가 해당비구를 찾아가니 해당비구는 길가에 가부좌하여 깊은 삼매에 들어있었는데 삼매에 들어있는 해당비구의 몸에서 불보살님과 호법신장이 출현하는 등 부사의한 경계를 보이고 있었다. 삼매를 닦을 때 지혜가 밝아지고 일체의 선법과 무량한 공덕을 일으키게 되고, 업장이 소멸되며 마음에 일체의 장애나 막힘없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무량한 자비심이 비로소 생기게 되고 자비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삼매를 닦지 않으면 지혜롭게 살 수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만 지혜가 밝은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일체 선법(善法)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선정 삼매를 통한 지혜 때문입니다.

염송선이 진정한 자기 수행

우리는 염송정진 할 때 염송 삼매에 드는 염송선(念誦禪)을 닦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한 두 시간 염송정진을 하더라도 반드시 염송 삼매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쉽게 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수행하다보면 가능해 집니다.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염송정진 시 호흡법과 관법을 행해야 합니다.

관법을 행하지 않으면 수마(睡魔)나 번뇌마에 잡혀서 자기 수행에 진전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를 벗어나지 못하면 삼매에 들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통일 하여 일념으로 하기 위하여 호흡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끝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여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릴 때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직 숨 쉬는 것에만 마음이 모아 집니다. 이렇게 호흡법을 통해 마음이 일념이 되었을 때 관법으로 들어갑니다. 관법은 월륜관입니다. 자신이 앉아 있는 곳에서 1미터 쯤 거리에 둥글고 밝은 보름달을 관하는 것입니다. 크기는 가슴과 얼굴 높이에 한자 정도의 크기면 됩니다. 월륜이 뚜렷해 질 때까지 월륜관을 합니다. 그리고 월륜관이 뚜렷이 되면 월륜위에 본존을 관합니다.

옴마니반메흠을 한자씩 관하거나 옴자 한자만 관해도 됩니다. 이때 옴자는 황금빛이며 진리의 부처 즉 법신불의 당체며 법신불의 지관을 의미 합니다. 이렇게 월륜관과 옴자 관법으로 염송정진 하되 정진의 목표를 생사초월, 생사해탈에 두고 자기수행에 충실하여 삼매로써 염송선을 닦아서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이루고 즉신성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행했다고 하지만 그냥 ‘옴마니반메흠’만을 염송하거나 ‘왕생성불사바하’만을 위해서 정진 한다면 제대로 된 자기 수행이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법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삼매와 지혜를 닦는 자기 수행에 충실할 때 더 큰 공덕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혜있는 삶은 복 지을 때와 정진 할 때를 놓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재난과 나쁜 일들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밝으면 다가오는 나쁜 일들을 방편법을

써서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지혜 없이 살다보면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게 됩니다. 종조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은 탐진치 삼독에 중독되어있어 공덕이 생기기 어려우므로 본심 진언 염송으로 잘 다스리고 염송삼매 수행으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시듯이 염송 삼매 수행으로 지혜를 닦고 밝혀야 합니다.

가뭇이 들어 물이 없다면 살 수가 없지만 물이 너무 많아 흥수나 물난리가 나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뭇과 흥수의 조절 가능 있어야만 재난,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이 복이 없어도 살기 힘들지만 지혜가 없으면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법을 믿고 법에 의지해서 염송삼매를 부지런히 닦으면 지혜를 증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가까이하고 살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롭게 살게 되며 늘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아서 큰 공덕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 작품

인생은 내가 만드는 내 작품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무엇을 탓 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작품을 내가 만드는데 누구의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내 탓이지 남의 탓은 아닙니다. 내가 만든 내 작품이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불량품도 될 수 있고 졸작도 될 수 있습니다. 장 가꾸고 다듬으면 걸작도 되고 수작도 되고 명품인생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정 불변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고나 것도 없지는 않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법칙과 한 가지 인생의 공식에 따라 열심히 살게 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법칙은 인과법과 인연법이고, 한 가지 인생 공식은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공식입니다.

이 법칙과 공식에 따라 좋은 인을 심고 좋은

인연을 가꾸며 때를 놓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인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돌려주며 악한 인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돌려주는 것임을 굳게 믿고 악인은 짓지 말고 선인만 짓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닦고 살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진리입니다.

예수제가 바로 그 예입니다. 흔히 예수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생을 위해 공덕을 미리 닦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제의 더 큰 의미는 어릴 때, 특히 나이 스물이 되기 전에 과거 전생업을 미리 닦아서 전생업을 소멸하고 나이 들면서 (20대, 30대, 40대에) 과거 전생업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살기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많이 닦아주고 닦으며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잘 만드는 것이 됩니다.

금년 한해 불공은 인생의 모든 것이 내 하기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복을 닦고 수행 정진해서 지혜를 밝히기 위해 노력 합니다.

세상사 인생사에는 가지는 것만큼 자신이 구속당하게 되며 누리고 사는 만큼 업이 쌓이게 됩니다. 재물은 내 인생의 도우미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 할 뿐입니다. 도우미에 인생의 무게 중심을 두게 되면 내 삶이 항상 불편하게 되고 생사해탈하는 자기수행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도우미에 너무 애착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복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렸고 화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 밀교연구회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I)

오불(五佛)

불(佛)이란 ‘깨친 분’을 가리킨다. ‘무엇을 깨쳤느냐고 하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佛敎)라 하면 바로 ‘부처님, 불(佛)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된다. 그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종교가 불교이다. 우리는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 성불(成佛)이 목적이다. 그래서 구경성불(究竟成佛)이라고 말한다.

소원성취와 재난소멸은 성불로 가기 위한 과정이요 방편인 것이다. 우리가 닦아서 이루어야 할 것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불(佛)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수행하고 있다.

불교에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등장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십불(過去十佛)이 있었고 석가모니부처님 이후에는 수많은 방편불(方便佛)이 등장하였다. 대승불교의 다불신앙(多佛信仰)을 거치면서 불교에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수많은 존상(尊像)들이 등장하였다. 이를 판테온이라 한다. 힌두신의 불교화(佛敎化)를 의미한다. 이 점은 밀교의 특징이다. 밀교에는 특히 수많은 불보살들이 등장하는데, 중보의 지면을 통해 밀교의 불보살을 한 분 한 분 친견하고자 한다.

〈밀교연구소 연구원/ 법천사 주교 법경 정사〉

총지중에서 진호국가불공시에 청명하는 오불(五佛)은 금강계만다라에 등장하는 오불(五佛)이다. 진호국가불공의 의례가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에는 금강계만다라의 오불(五佛)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결인을 행할때는 금강계만다라의 비로자나불의 ‘지권인(智拳印)’을 결하는 것이다.

오불(五佛)은 중앙의 대일여래(비로자나불)를 중심으로 태장계만다라의 경우 동방(東方)에 보당여래(寶幢如來), 남방(南方)에 개부좌왕여래(開敷華王如來), 서방(西方)에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 북방에 천고뇌음여래(天鼓雷音如來)가 자리잡고 있다.

금강계만다라의 경우 동방(東方)에 아축불(阿閼佛), 남방(南方)에 보생불(寶生佛), 서방(西方)에 아미타불(阿彌陀佛), 북방에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이 자리잡고 있다.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의 오불의 명칭이 다르다. 그러나 그 존상(尊像)의 덕성(德性)과 역할, 공능(功能)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밀교의 오불(五佛)의 사상은 동서남북의 방위에서 시작된다. 그 방위는 곧 왕(王)이 살고 있는 성곽을 중심으로

로 『금광명경(金光明經)』, 『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 등에서 시작되었다. 『금광명경』의 아축(阿閼), 보상(寶相), 무량수(無量壽), 미묘성(微妙聲)의 사불(四佛)이 ‘여래가 그것이다.

『관 불 삼 매 경』에서도 사 불 (四 佛)이 등장하는데 『금광명경』과는 명칭이 조금 다르다. 그 명칭은 묘희국(妙喜國), 환희국(歡喜國), 극락국(極樂國), 연화장엄국(蓮華莊嚴國)이다. 이 사불들은 연꽃의 좌대에 앉아 일체 법계를 두루 비추고 계신다. 명칭은 다르지만 그 공성(功性)에는 별차이가 없다. 동일한 성질에 이르면 다를 뿐이다. 이 사불(四佛)은 6, 7세기경 밀교의 『대일경』 『금강정경』에 그대로 영향을 주어 사불의 신앙은 더욱 공고해졌다. 모든 만다라의 중심축을 이루게 되었고, 그 중앙에는 항상 비로자나불이 위치하고 사방에는 사불이 위치하였다. 이것이 점차 발전되어 제불보살(諸佛菩薩)들이 제각기 중심이 되어 일존(一尊)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그것이 일존만다라(一尊曼荼羅)이다.

동서남북의 사방(四方)에 사불(四佛)이라는 구성은 이후 계속 이어져 왔다가 7세기에 이르러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7세기 초에 한역(漢譯)된 『일자불정륜왕경(一字佛頂輪王經)』에는 사불(四佛)의 중앙에 석가모니불이 등장하고 동서남북에 각기 보성(寶性), 개부연화왕(開敷蓮花王), 무량광(無量光), 아축(阿閼)의 사불(四佛)이 등장하였다. 또 『불공견색경(不空羼索經)』에도 역시 중앙에 석가모니불이 등장하고 동서남북으로는 아축(阿閼), 보생(寶生), 아미타(阿彌陀), 세간왕(世間王)이라는 사불이 등장하였다.

이 가운데 『일자불정륜왕경』에 등장하는 사불(四佛)은 태장계만다라로 이어졌고, 『불공견색경』에 나오는 사불(四佛)은 금강계만다라로 이어졌다.

태장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불(四佛)을 중심으로 사방에 사보살(四菩薩)이 있고, 또 그 보살을 중심으로 수많은 존상(尊像)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방을 중심으로 배대되는 이러한 ‘방위(方位)’의 인식은 인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이미 존재했던 공통된 우주관이자 동일한 문화 요소였다. 즉 기존의 방위 체계에 불교 특유의 존상들이 가미된 것이다.

우리가 천도재를 올리며 계승을 읊고 있는 ‘무상계’의 말미에도 오불이 등장하고 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금강견고 자성신 아축불, 공덕 장엄 취신 보생불, 수용지혜신 아미타불, 작변화신 불공성취불을 칭명하고 있다. 오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불의 공능에 대해서 다음호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총지중은 매년 2월 20일이 되면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불공’을 49일간 올린다. 이를 ‘진호국가불공(鎮護國家佛供)’이라 한다. 진호국가불공은 ‘외적의 침입이나 환란(患亂)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행하는 불교의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호국도랑회의 개설이다. 특히 고려시대에 많이 개설되었다.

이 법회에서 국난을 없애고 원적(怨敵)을 물리쳐서 국가를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호국삼부경(護國三部經)’을 강설하고 여러 가지 수법(修法)들이 행해졌다. 호국삼부경(護國三部經)은 『법화경』 『인왕경』 『금광명경』이다. 이 경전을 강설하는 법회와 도량을 일러 ‘호국법회’ ‘호국도랑’이라 불렀다.

호국불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밀교의 대표종단인 총지중에서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호국가불공’을 올린다. 상반기 진호국가불공은 2월 20일에 시작하여 4월 8일에 마치고, 하반기 진호국가불공은 5월28일에 시작하여 7월15일에 마친다.

총지중은 밀교의 호국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여 진호국가불공을 행하고 있다. 이 경전에 근거하여 비로자나불의 결인(結印)인 ‘지권인(智拳印)’을 결하고 수호국계주진언(守護國界主眞言)인 ‘옴홀야호사’를 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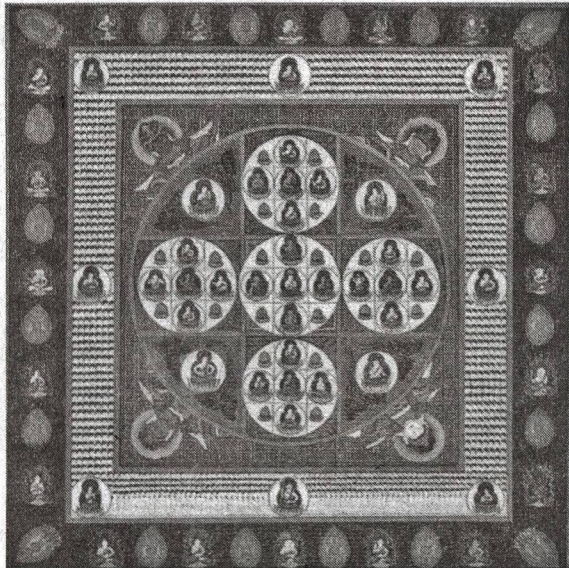
이 의례가 진호국가불공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불공에서



태장계만다라 중대팔엽인

배놓을 수 없는 것이 오불(五佛)을 비롯한 사보살(四菩薩), 사대명왕(四大明王)과 사대천왕(四大天王)의 명호(名號)를 관송(觀誦)하는 것이다. 이를 진호국가불공의 만다라관(曼荼羅觀)이라고 한다.

오불(五佛)은 『대일경』에 근거한 태장계만다라의 오 불 (五 佛)이 있고, 『금강 정 경』에 근거한 금강계만다라의 오 불 (五 佛)의 두 가지가 있다.



금강계만다라 성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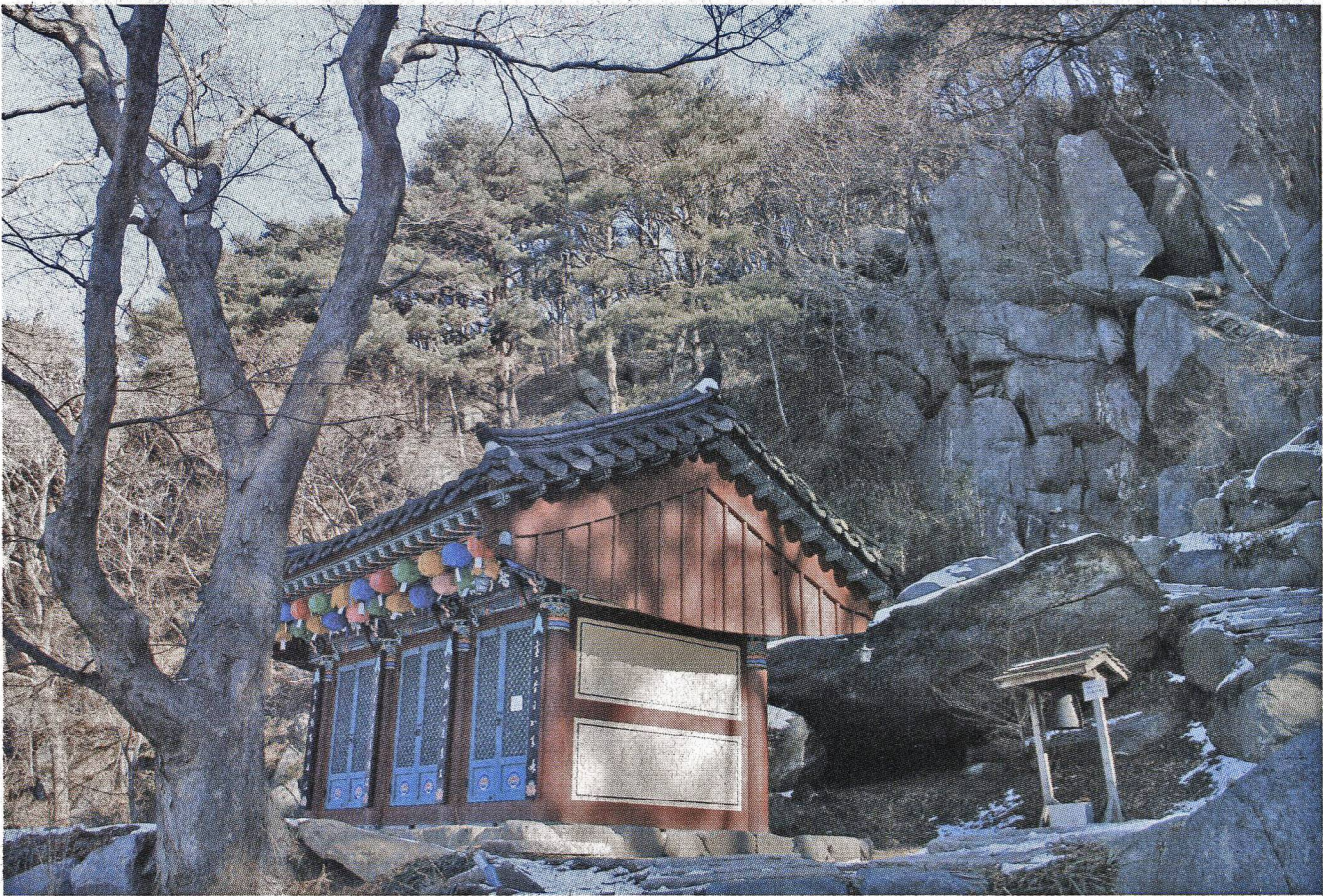
동서남북의 사문(四門)에 근거하고 있다. 만다라의 태생이 고대 인도의 왕성(王城)을 본 뜬 것이기 때문이다. 왕성의 사방문(四方門)에는 왕을 호위하는 장수가 있는데, 사찰의 입구에서 불법을 지키고 있는 사대천왕, 즉 사천왕(四天王)의 근거가 되고 있다.

사방에 사불(四佛)이 등장한 것은 기원후 4세기 무렵으

연중 기획
불교민속=산신각 탐방

선묘낭자의 끝없는 사랑이 머문 또 하나의 부석사

용왕과 산신 그리고 선묘낭자를 모신 도비산 부석사 산신각



선묘낭자의 전설이 머문 바위 부석

한국불교의 화엄종찰인 영주 부석사는 무량수전과 안양루에서 내려다본 소백산맥의 아름다움으로 불자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중국에서 유학한 의상 대사가 신라통일기인 676년 세운 고찰로 '우리나라 10대 사찰'중 하나이다.

부석사에는 의상 대사와 중국 여인 선묘 낭자에 얽힌 애절한 러브 스토리가 유명하다.

선묘는 당나라로 유학 온 의상을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불법을 공부하는 의상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의상은 선묘의 사랑을 거부하고 공부를 마친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탄다.

이때 선묘는 바다에 몸을 던져 용이 되고, 의상 대사가 협한 풍랑을 헤치고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의상 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할 때 이 지역에 있던 500여명의 유민이 절 창건을 방해하자, 용이 된 선묘가 커다란 너럭바위를 들어 올려 유민을 물리치고 절 창건을 도왔다고 한다.

부석사 무량수전 왼편 뒤쪽에는 당시 선묘가 유민 무리를 물리치기 위해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는 너럭바위가 전설처럼 남아있다. 여기 또 다른 부석사에도 선묘낭자의 설화가 있다.

서산 도비산 자락의 부석사에도 똑같은 설화가 있다. 다만 선묘낭자가 부석사 앞 바다에 바위로 변해 부석사를 지킨다는 점이 다르다.

창건 연대는 677년으로 영주 부석사 보다는 한해가 늦다. 서산 앞바다 천수만을 바라보는 부석사가의 중국을 마주보고 있다는 점에서 설화의 사실성은 더욱 커진다.

만조 시에는 물에 잠기고 간조 시에는 물위에 뜬 바위처럼 보였다는 부석의 존재는 아쉽게도 지금은 매립으로 확인 할 수는 없었다.

경허, 만공 대선사의 정진도량 부석사

조선시대 무학스님이 중창하고, 근대에는 한국선불교를 중흥시킨 경허, 만공 대선사들께서 이곳에서 수행정진 하였다.

인중지룡(人中之龍)을 길러내는 곳이라는 '목룡장(牧龍莊)'과 지혜의 검을 찾는 곳이라는 '심검당(尋劍堂)' 현판은 경허스님의 글씨이다.

부석사 큰방에 걸려있는 '부석사(浮石寺)' 현판은 만공스님께서 70세에 쓴 글이다. 큰 법당인 극락전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는 목룡장과 심검당 큰방은 누워있는 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심검당 아래의 약수는 우유(牛乳) 약수라 부른다. 법당 옆의 큰 바위는 소뿔의 형상을 하고 법당 건너편 개울 아래에는 소가 마실 물이 흐르는 구수통(여물통)이 있는데, 이 구수통에 물이 계속 넘치면 부석사에서는 먹거리 걱정이 없다고 전한다.

마일에 전하는 이야기로 100여 년 전에 부석사 약수가 끊어져 이상하게 여겨 스님들과 마을사람들이 부석(검은여)에 가보니 누군가 몰래 무덤을 썼기에 주인을 찾아 무덤을 이장하고 나니 다시 약수가 솟았다고 한다.

그래서 부석사와 부석(검은여)간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통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극락전 아래에는 안양루(安養樓)가 있다. 극락전이 부처님의 집이라면 안양루는 극락세계 대중들의 머무는 곳이다.

'한지붕 세가족' 특이한 산신각

법당 좌측으로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산신각이 있다. 산신각에는 중앙에 산신, 우측에 선묘낭자, 좌측에 용왕을 모셨다.

산신은 백발 수염에 호랑이를 타고 있는 전형적인 산신의 모습이다. 선묘낭자는 입상으로 모셨는데, 영주 부석사의 탕화에서 보여지는 선묘의 모습과는 달리 작고 아담한 동자녀의 모습이다.

서해 바다를 바라보는 지리적 위치로 용왕을 모신듯한데 용왕은 산신각의 좌측으로 돌아가면 산신각이 올라가도 남을 만큼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거북바위다.

어떤 분들은 이 바위가 부석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우리 부석사의 부석은 분명히 바다위에 있다.

하지만 혹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어도 좋을 것 같다.

용 두 마리를 등에진 의자에 앉아 제관들의 호위를 받는 모습이다.

역시 거북이의 모습을 한 별주부가 보인다.

산신 사원의 경우에는 삼성각이란 이름으로 산신, 칠성, 독성을 모시는데 반하여 이곳은 전면 3칸짜리 하나의 전각에 각 칸마다 좌측으로부터 용왕각, 산신각, 선묘각의 현판을 따로 따로 걸었다.

전각은 최근에 다시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단청의 색이 짙은 것으로 보아 집을 먼저 짓고, 2-3년간의 건조 과정을 거친 후 색을 입힌 것 같다.

불교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서산

서산은 백제시대부터 중국과의 해상 교통이 발달한 요지였다. 중국의 산동 반도를 떠난 배들은 지금의 서산이나 당진으로 들어왔다. 그만큼 중국의 선진문물이 빨리 당도하는 곳이었다.

물론 당시 중국의 불교문화가 가장 먼저 전해진 곳도 이곳이

있을 것이다. 서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백제 후기에 조성된 용현면 마애삼존불을 들 수 있다.

국보 84호로 지정된 이 마애불은 '백제의 미소'로 불리워지며 온화한 한국 불상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가 문화재청장 재직 시절 마애불을 감싸고 있던 보호각을 철거 하였다. 보호각이 있을 때는 인공적인 빛에 의존해 불상의 미소를 친견했지만 지금은 아침부터 해질 녘까지 자연의 빛으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간월도 간월암에서 바라보는 낙조도 이곳을 방문했을 때 반드시 들러 보아야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처음 부석사를 만난 것은 기자가 대학을 다닐 때였다.

일학년 추계답사로 영주 부석사를 찾았다. 지금은 잘 정비된 진입로를 따라 사찰로 올라가지만 그때만 해도 비포장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사과나무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경사진 도로를 따라 안양루에 올라, 굽이굽이 펼쳐진 소백산맥의 장엄함에 기자는 그 자리에서 목석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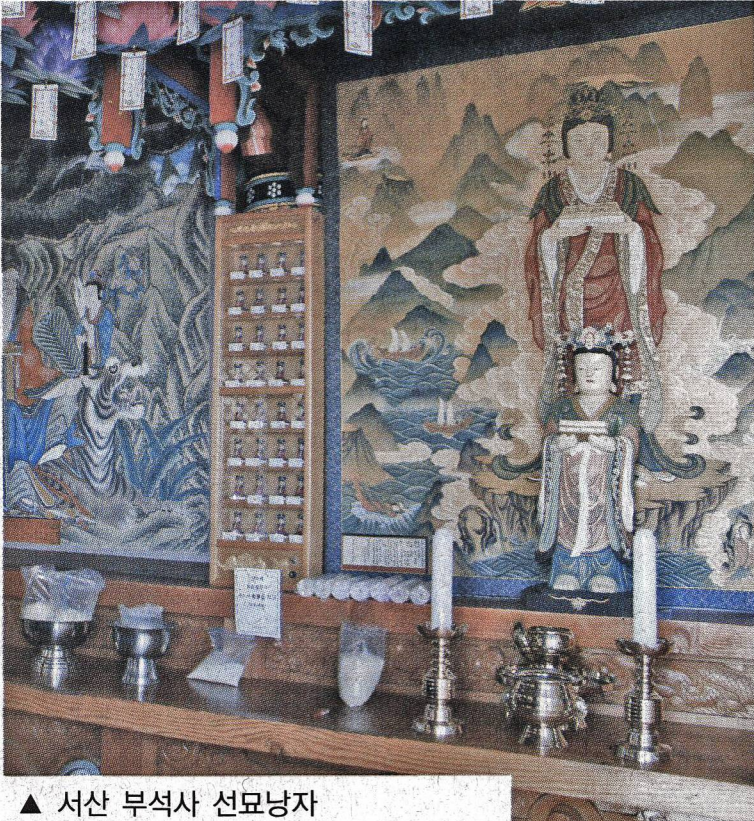
스무 살, 굽이치는 소백산의 아름다운 모습은 힘들고 치열 때마다 내 가슴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풍광으로 자리 잡았다.

서산의 부석사를 찾았을 때도 같은 감흥을 받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걸었다. 아나니 다름가 앞으로 펼쳐진 천수만의 아름다움은 마흔 네 살의 가슴속으로 다가왔다.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눈에는 소백산의 굽이치는 산동성이 서해의 천수만 앞바다의 파도로 보이는 않았을까? 아니면 물으로 오르지 못하는 서해의 용, 선묘낭자를 위해 천수만 앞 도비산 자락에 부석사를 창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나라에는 같은 이름과 창건 설화를 가진 두 개의 부석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번 취재를 마쳤다.

서산 도비산 부석사=김종열 기자



▲ 서산 부석사 선묘낭자



▲ 영주 부석사 선묘낭자



암반수로 빚은 전통된장

“강화도”

강화도 청정지역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우리 된장



제품 종류

· 된장 1Kg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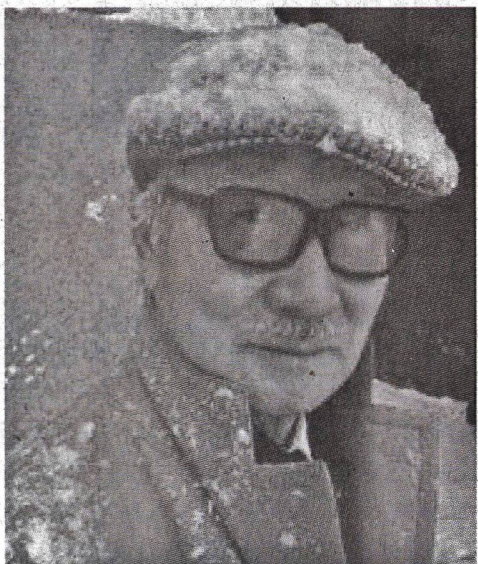
· 간장 1.8L : 10,000원

|| "편집위원이 가다"

현대 사진의 원조 임응식을 만나다.

그 시절 명동의 추억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편집위원회는 일주일간의 새해불공을 마치고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한해의 살림살이를 위한 새해불공에 묵언으로 수행한 위원님도 계시고, 각자가 서원한 바램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서로 축원하였다. 종보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편집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이번 호는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 사진예술의 원조 임응식 작가전을 취재하기로 하였다.



대한제국의 정궁 경운궁(덕수궁)

2012년 1월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금은 분주한 마음이지만 모두들 덕수궁으로 모였다. 젊은 시절을 서울에서 보낸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은 걸었을 덕수궁 돌담길 추억을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덕수궁으로 입장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정비된 모습이지만, 도심 한가운데 이런 궁궐들을 가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한 왕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궁궐은 관람할 때 마다 또 다른 감흥으로 다가 온다. 대한제국의 정궁인 덕수궁은 원래 성종(9대)의 형인 월산대군의 저택이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서울의 모든 궁궐이 불타 없어지자 1593년(선조 26)부터 선조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다가 광해군이 1611년(광해3) 정통동 행궁으로 불리던 이곳에 '경운궁'이라는 정식 궁호를 붙여 주었다. 그 후 광해군은 1615년(광해7) 재건한 창덕궁으로 아가를 옮기고 경운궁은 별궁으로 남게 되었다. 경운궁은 1897년 대한제국 출범과 함께 한국 근대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전성기 때의 경운궁은 현재 넓이의 3배에 달하는 큰 궁궐이었다. 현재의 미국대사관저 건너편 서쪽에는 중명전을 비롯해 황실 생활을 위한 전각들이 있었고, 북쪽에는 역대 임금들을 제사 지내는 선원전이 있었으며,

동쪽에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환구단을 설치하여 황제국의 위세를 과시했다. 그러나 고종황제가 황위에서 물러나면서 경운궁은 선황제가 거처하는 궁으로 그 위상이 달라졌고 이름도 덕수궁으로 바뀌었다. 덕수궁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궁궐 건축물인 석조전이 자리한다. 석조전의 기본 설계는 영국인 G.D.하딩이, 내부 설계는 영국인 로벨이 하였다. 1900년(광무 4)에 착공하여 1910년(융희 3)에 완공하였다. 지금은 원형 복원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석조전의 서편 건물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덕수궁 미술관으로 불린다.

1937년 이왕직박물관 으로 지은 건물이다. 덕수궁 주변에는 정동교회, 이화여고, 러시아대사관, 성공회 서울대학교 주교좌성당, 영국대사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새로운 연인 들은 한번은 다녀가는 데이트코스이기도 하다.

임응식 모두 기록의 예술, 예술의 기록

사진작가 임응식은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다. 사진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사진 계몽운동가 및 교육가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임응식이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1930~40년대 '예술 사진' 시대의 작품부터 그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1950년대의 리얼리즘 계열 사진,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이후로 작가가 일정한 주제를 내걸고 촬영하여 '공간'지에 연재한 문화재 전문가, 사진가, 예술가의 초상 시리즈를 모두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그

동안 거의 발표되지 않은 작업인, '명동 사진'이 출품되는데, 유족이 소유한 필름을 인화하여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사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임응식이 명동 거리를 다니면서 '명동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스냅 사진으로 찍은 작품들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변화하는 명동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편집위원들은 혹시 자신의 젊은 시절이 사진으로 남지는 않았을까 하는 기대로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다. 또한 작가와 함께 활동한 동료, 제자들이 촬영한 '기억의 현사: 임응식의 초상사진'과 초기 부산에서 함께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작은 역사전: 임응식과 초기 부산사진'도 전시에 포함되어 작가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피는 기회가 되었다.

임응식의 시대별 작품세계

예술사진에서 사진예술로 (1930년대~1960년대)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임응식의 초기 작품을 다룬 섹션이다. 사진은 일제강점기에 수용·정착되고 제도화된 예술사진이 성행하다가 한국전쟁기에 들어서 기록사진의 성향을 띤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후(이후)에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계열의 사진이 주류를 이루는데, 임응식의 사진 활동 역시 한국사진사의 전개과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문화재와 예술가의 기록 (1960년대~1980년대 초)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에 작업한 고 건축 사진과 예술가들의 초상사진으로 구성되었다. 1960~70년대에는 한국의 전통과 미를 재발견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작업이 역사, 문학, 미술, 사진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임응식은 문화재 사진을 통해서 사진이라는 매체가 지닌 기록성과 예술성을 성취하고자 했다.

명동, 명동 사람들 (1950년대~1990년대)

한국전쟁에 종군하여 폐허로 변한 명동을 기록하기 시작한 1950년부터 타계한 해인 2001년 작전까지 50년 넘게 촬영한 명동 사진을 다룬다. 임응식은 명동을 '한국 사회변화의 축소판'으로 보고,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하루하루 변하는 명동의 모습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되는 명동 사진 중에는 유족이 소장한 필름을 인화하여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들도 다수 포함 된다. 명동 풍경, 명동의 인물, 명동의 패션을 비롯하여 임응식이 주로 다녔던 명동 코스를 지도와 사진으로 재구성한 사진가 L씨의 명동 일일 등이 눈에 띄는 작품이다.

임응식과 사진 아카이브

마지막에는 두 개의 소품전과 임응식이 남긴 유품 및 저서 등의 각종 아카이브 자료로 구성된다. '작은 역사 전: 임응식과 초기 부산사진'은 그와 함께 설립한 부산광화회(1946년 창립), 부산예술사진연구회(1947년 창립)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병삼, 박기동 등 부산출신 사진가들의 작품들을 다룬다. '기억의 현사'는 임응식과 함께 활동했던 동료와 그에게서



흐르는 정관현, 아쉽지만 지금은 테이블만 남아 쓸쓸해 보이니까지 했다. 정관현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중화전으로 통하는 작은 문에서 위원들은 흑룡을 발견했다. 올해가 임진년이고 또 흑룡의 해에 만난 작은 행운 이었다. 모두가 흑룡의 기운을 하나 가득 받고 취재를 마친 하루였다.

취재: 편집위원 이인성, 박정희, 최영아, 강경민
벽록사 통신원 양재범, 밀인사
통신원 이형자
정리: 김종열 기자



보일러에 물만 바뀌어도 열효율을 33% 높여줍니다

난방비 걱정 끝!

자꾸만 올라가는 기름값! 가스값!

늘어나는 난방비 때문에 신물나시죠?
국내최초 난방비를 1/3 이상 줄여주는
새로운 따끈이 난방수가 나왔습니다.



등부화재 배상책임보험 1억가입

음이온효과로
건강에 탁월합니다.



2013년부터
탄소세를 줄입니다!

✓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탄소세를 줄입니다!

✓ 국민여러분,
따끈이로 절약하고 애국합시다!

동파해결! 100%

(주)도란의 기술력이 탄생시킨 신물질, Bio따끈이

-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에 간편하게 따끈이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 물보다 비열이 월등하기에 25%~33% 이상 열효율이 높아집니다.
- 한번 넣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되고 혹한기 동파 우려가 없습니다.
- 다른 난방철약 기기와 달리 별도의 시공,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 탁월한 부식방지 작용으로 보일러의 수명을 오래 가게 합니다.

본부장 김순자

HP: 010-5288-3951

www.dolan.co.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대리점모집
■ 영업사원모집 00명

날마다 좋은날

세계화되는 한글, 파괴되는 한글

동해중 3-5 진회윤

인도네시아에 있는 부톤 섬의 바우바우시에는 인구가 6만 명인 짜이짜아족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 한글을 채택했다. 짜이짜아족은 자신들의 언어는 있었지만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인 한글을 채택했고 세계 공통어인 영어와 함께 표지판 등 공식적인 곳에 한글을 표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일부 언어학자 들은 세계 공용어를 사용 인구와 상관없이 새로 정한다면 한글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적합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우수한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는 56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조선시대, 그때는 우리나라 글자가 없었다. 그 대신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그대로 썼다.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이다. 표의문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뜻이 있는 글자이다. 표음문자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소리가 있어서 몇 개의 글자만 알면 무궁무진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다. 반면에 표의문자는 실생활에서 무리 없이 대화를 하려면 최소한 6000개 정도의 글자를 외워야 할 정도로 글자가 많다. 이것이 표의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맹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는 표의문자인 한자를 썼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양반, 똑똑한 사람들만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은 대부분 글을 알 수 없었다. 이를 측은하게 여긴 세종대왕은 과학적이고 쓰기 쉬운 독창적인 언어를 만들려고 학자들이 모여서 학문을 연구하는 집현전을 만들고 독창적인 언어를

만들게 했다. 드디어 1443년 우리 고유의 언어를 창제하게 된다. 그로부터 3년 동안 검토를 하고 1446년 '백성들은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하지만 양반들은 언문이라고 비하하면서 함소를 올렸다. 하지만 양반이 아닌 서민들은 드디어 글을 쓰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단기간에 목적을 가지고 만든 언어는 유래가 없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위대한 한글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있다. 요즘 청소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 말들을 들어보면 때로는 '더럽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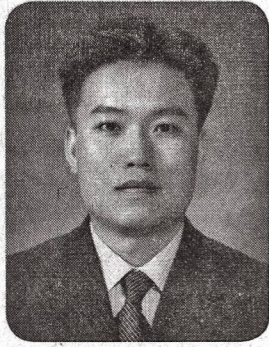
이런 말들은 주로 3가지가 있다. 바로 비속어, 은어, 외래어이다. 비속어는 주로 욕을 말하고 남을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모욕과 불쾌를 줄 수 있다. 은어는 특정 집단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그 집단에는 결속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외래어는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말을 그대로 들고 온 경우이다.

앞에서 말했듯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점차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언어 파괴를 하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글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욕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 한글이 세계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야말로 한글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불자생활법률



등기명의인 3명이 서로 짜고 종중의 선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고 선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요?

집안의 선조들의 묘가 모셔진 선산을 종중원이 모여 선출한 대표자 3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자 등기명의인 3명이 서로 짜고 종중의 선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고 선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요?

▶ 종중원들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선산의 소유권을 위탁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종중원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 선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하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이 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예기간을 1996년 6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8조 제1호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종중(종중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위와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같은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선산의 등기명의인들은 종중소유 선산의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의 종중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위 선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22. 선고99도5227판결)

그러나 명의신탁 관계로 등기부에 등재된 명의인은 대외적으로는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등기명의인 3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선산을 매수한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종중 명의의 위 선산을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임야를 불법으로 매대한 대표자 3명에 대하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 하동길 법률사무소
(대표전화:02-596-4600)

총지동의보감

요실금 예방법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출산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년 여성이나 노년층 등 전체 성인여성의 40% 이상이 가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여성질환 중에 하나인 '요실금'.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은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신체활동은 물론 정신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고질병입니다.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소변이 새는 배뇨현상으로 중년에서 많이 나타나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인데 최근에는 30대 젊은 층에서도 스트레스, 비만 등

내적, 외부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방광근육이 비대해지고 방광벽이 두꺼워져서 그 기능에 점차 떨어지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골반근육과 방광이 처지거나 폐경기 이후 요도와 방광의 혈관들이 위축되는 중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생리적으로 남성에 비해 짧은 요도길로도 요실금의 발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혹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 그리고 자궁내막증 등의 자궁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자궁을 비롯해 간이나 신장 등 생식기능이 약해지면서 대소변의 장애와 요실금 등 기능적인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방에서 보는 요실금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천적으로 신기(腎氣)가 허약하여 방광의 주변생식력이 약해져 발병하는 경우.

둘째, 평소 하복부가 냉하거나 하체가 약해 방광을 결속력을 저하는 경우.

셋째, 반복적인 출산과 수술, 유산, 폐경으로 방광을 비롯한 자궁, 요도, 골반근육이 이완되어 발생하는 경우.

넷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긴장상태를 통해서 기혈의 흐름이 원활히 못해 방광 및 주변배출기능이 무력해 질 경우 요실금의 장애와 요실금 등 기능적인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궁 및 장 등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운을 보강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약해진 간, 심장, 신장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보충의기탕, 육미지황탕, 신기환 등의 처방을 활용합니다.

또한 외치법으로 사상자, 익모초, 쑥 등의 약재를 끓여 기운을 질 내로 쏘여 주거나 세정을 하는 좌훈욕과 한방좌약 등을 이용하여 질 내에 삽입함으로써 수축력과 방광 및 생식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요실금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요실금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에 꾸준히 골반 근육운동을 실시하고, 일정간격으로 소변보는 습관을 가지며, 알코올, 카페인 함유 제품 등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멀리하고, 요실금 유발의 또 다른 요인인 변비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을 섭취하고, 마지막으로 비만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가 요실금을 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능동적 자세가 요실금으로부터 해방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성 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제(임뎃),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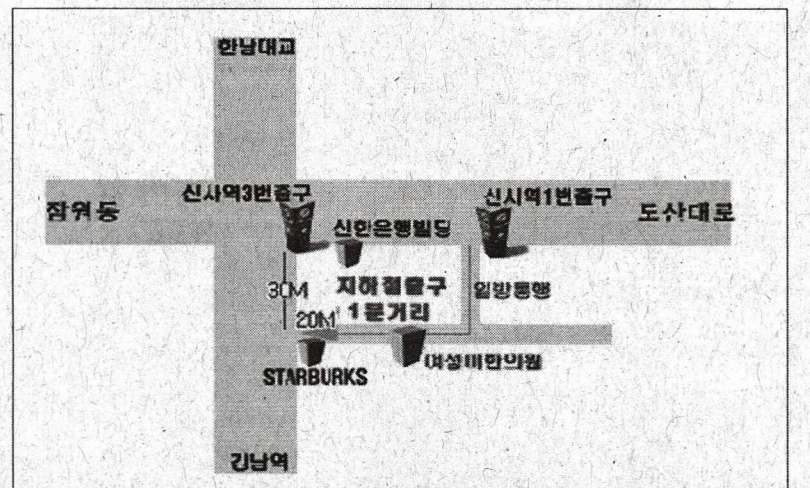
-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 의 상담"



생리액분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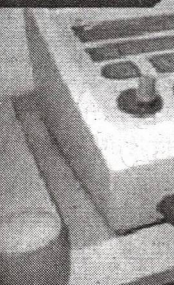
자궁팔강진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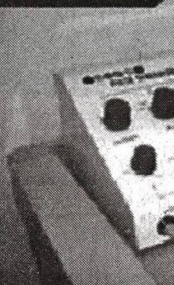
조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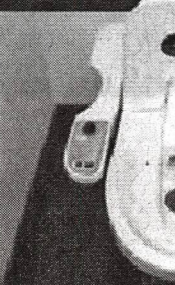
온열진기침



저주파치료기



좌훈욕기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불서

법정, 나를 물들이다.

불광출판사 간, 변택주 지음

법정, 나를 물들이다



한 어머니가 절에 다니면서 자식을 위해 딱 한 가지 기도만 했다. 좋은 인연 만나게 해 달라고. 이만 한 기도 또 있을까. 사람살이가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뤄지는 것이니, 좋은 인연 만나면

세상일이야 자연스럽게 풀리기 마련이니까. 여기 법정 스님과 함께 가서(同行) 법정 스님과 함께 행복했던(同幸) 열아홉 사람의 인연 이야기가 있다. 법정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나 니르바나의 세계로 가신지 벌써 두 해다. 오는 3월 11일이면 2주기를 맞는다. 법정스님 생전 김상사 법회에서 진행을 맡았던 맑고 향기롭게 변택주 전 이사가 스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작은 인연으로 한생을 같이 하다.

이 책에는 독보적인 자기 예술 세계를 구축한 조각가 최중태, 법정 찾잔으로 스님과 인연을 이어 간 도예가 김기철, 그림으로 시를 쓰는 화가 박항률, 농사꾼으로 변신한 방송인 이계진 등 유명인들도 있고, 성철 스님 시봉일기로 유명한 원택 스님, 종교 벽을 허물고 우정을 나눈 장익 주교, 온 누리 어머니로 사는 원불교 박청수 교무와 같이 우리 시대에 큰 길을 가는 종교인도 있다. 그리고 20여 년간 스님 어머니를 모신 사촌동생 박성직, 꿩이 한 자루 들고 등산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파 내려오던 백지현, 스님이 왜 김상사에서 딱 하루만 묵으셨는지 사연을

들려 준 홍기은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 법정 스님은 어떤 분일까? 또 법정 스님에게 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법정 스님의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만날 수 있다.

많은 이야기 중 법정 스님 사촌동생 박성직은 스님 출가 후 20여 년 동안 스님 어머니를 모셨다. 박성직씨가 소장하고 있던 스님의 편지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오늘 오후에야 받아 보았다. ... 할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법당에 들어가서 많이 울었다.”라며 속가 부친에 대한 불효를 털어놓는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법정 스님과 함께 성철 스님의 책 『본지풍광』과 『선문정로』를 만들었다. 며칠 동안 집중해서 원고를 손본 후 눈도 쉴 겸 바깥나들이를 했는데, 법정 스님이 몇 걸음 걷다가 수첩에 필적기를 계속했다. 원택스님은 “삼보일배하듯 오보일기(五步一記)를 하셨죠. 밖에 나다니면 어김없이 메모를 하시더라고요.”며 법정 스님의 꼼꼼한 습관을 회상했다.

김종열 기자

충전시공연습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화백 회고전

갤러리현대(종로구 사간동) 2012년 1월6일-2월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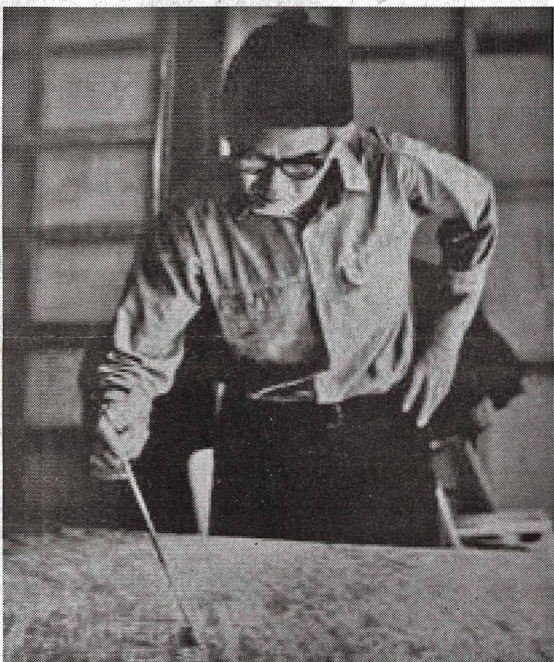
올해로 탄생 99주년을 맞은 김환기 화백의 대규모 회고전 “한국현대미술의 거장 김환기”를 1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갤러리 현대에서 연다. 갤러리 현대는 이번 전시는 2010년 박수근, 2011년 장욱진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거장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는 대규모 회고전이다. 김환기 화백이 20대 중반에 제작하였던 1930년대 작품부터 1974년 작고 직전의 작품까지 시대별 주요 작품이 총망한 전시다.

수화 김환기 화백은 한국 추상미술의 제1세대로 세련되고 승화된 조형언어로 한국적 서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예술 세계를 정립하였다. 그는 현대 미술의 중심지인 파리와 뉴욕으로까지 그 이름을 알렸다. 1930년대 후반 경부터 가장 전위적인 활동의 하나였던 추상미술을 시도, 한국 모더니즘의 선구자였다. 현대적이고 절제된 조형언어를 바탕으로 이룩한 그의 정서세계는 50년대에 이르러 산, 강, 달 등 자연을 주 소재로 더욱 밀도 높고 풍요로운 표현으로 한국적 정서를 아름답게 표현한다. 그의 예술은 56년부터 59년까지 약 3년간의 파리시대와 상파울

로 비엔날레에서 수상한 해인 63년부터 작고한 74년에 이르는 뉴욕시대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파리시대와 서울시대를 포함한 50년대까지 그의 예술은 엄격하고 절제된 조형성 속에 한국의 고유한 서정의 세계를 구현하였다. 이후 60년대 후반 뉴욕시대에는 점, 선, 면 등 순수한 조형적 요소로 보다 보편적이고 내밀한 서정의 세계를 심화시킨다.

2004년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회고전인 만큼, 이번 회고전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엄선된 ‘작품’과 ‘규모’입니다. 특히 기존에 공공 미술관에서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의 숨겨진 대표작을 엄선하고 모았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메아리(1964)〉, 〈귀로(1950년대)〉, 〈향아리와 꽃 가지(1957)〉, 〈무제 1964-65)〉 등 5-60년대 미공개작 4점이다. 전시의 구성은, 1930년에서 63년 사이의 구상작품 30여점과, 뉴욕시대로 일컬어지는 63년에서 74년 사이의 추상작품 30여 점을 구



분하여 시대별 작가의 작품세계를 구분하여 감상하는 좋은 기회이다. 교과서로만 만나던 한국현대미술의 거장 김환기를 만나려 겨울이 더 깊어지기 전에 어서 나서야겠다.

김종열 기자

즐겁게 만드는 건강 요리

매생이 굴국 - 속 시원한 겨울철 건강 별미

겨울 바다의 보약 매생이의 효능

매생이는 물이 청정한 곳에서만 서식하는 무공해 식물로서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목 넘김이 좋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 겨울철의 건강식품으로서 좋다. 매생이의 효능으로서는;

1. 매생이는 갈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체질로 변한 몸을 중화시켜 주어 성인병을 예방한다.
2. 칼슘, 철분, 요오드 등 무기염류와 비타민 A, C가 함유되어 갱년기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피부를 매끄럽고 맑게 해 주는 효능이 있다.
3.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하며 고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4. 염록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면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하고 소화흡수가 잘 되며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다



** 재료 준비 (3~4 인분)

매생이 200g (한 덩이), 생굴 200g, 다진 마늘 1큰술, 국간장 2큰술, 참기름 1큰술, 멸치 육수 6컵(1,200g), 소금 약간

** 조리 방법

1. 넓은 그릇에 매생이를 넣고 찬 물에 살랑살랑 흔들어 두세 번 깨끗이 씻은 뒤에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2. 생굴을 열은 소금물에 가볍게 흔들어 씻고 찬 물에 두세 번 헹구어 물기를 뺀다.
3.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생굴과 다진 마늘을 넣고 가볍게 볶는다.
4. 굴이 하얗게 익으면 바로 멸치 육수를 붓고 매생이를 넣어 끓인다.
5. 국물이 끓으면 국간장을 넣고 간에 맞추어 소금을 넣는다.
6. 매생이와 굴은 오래 끓이면 풍미가 떨어지므로 한 번만 포프르 끓이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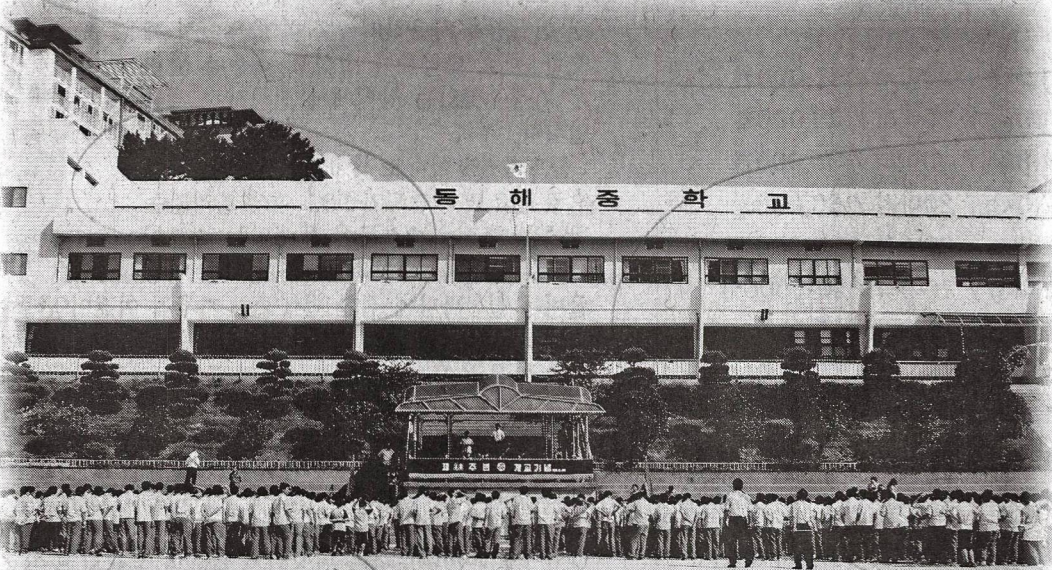


** 기타 팁

1. “매생이란 싱싱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
2. 매생이는 굴하고 가장 잘 어울리지만 굴이 없을 때는 홍합이나 쇠고기로 끓여도 좋다.
3. 매생이는 겨울이 제철이지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지퍼 백에 넣어 냉동, 보관하면 다른 계절에도 즐길 수 있다.
4. 매생이는 펄펄 끓여도 김이 나지 않기 때문에 첫 솥을 입에 넣을 때는 흑시라도 입천장이 데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편집 정리 =백지순 위원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신 의
성 실
정 직
교 목 보리수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풍경소리

번뇌하는 고대여!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고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게 되면
어리석은 마음을
돕게 되나니.

보왕삼매론 中

달 밤

양관선사의 오두막에
밤손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먼 길을 왔는데 그냥 가셔야 되겠는가?
옷을 벗어줄 테니 가져가시게."
밤손님은 옷을 받아 들고
뒤도 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달빛이 뜨락에 눈부셨습니다.
별 거승이가 된 선사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름다운 저 달빛까지도 줄 수
있었더라면..."

맹란자 / 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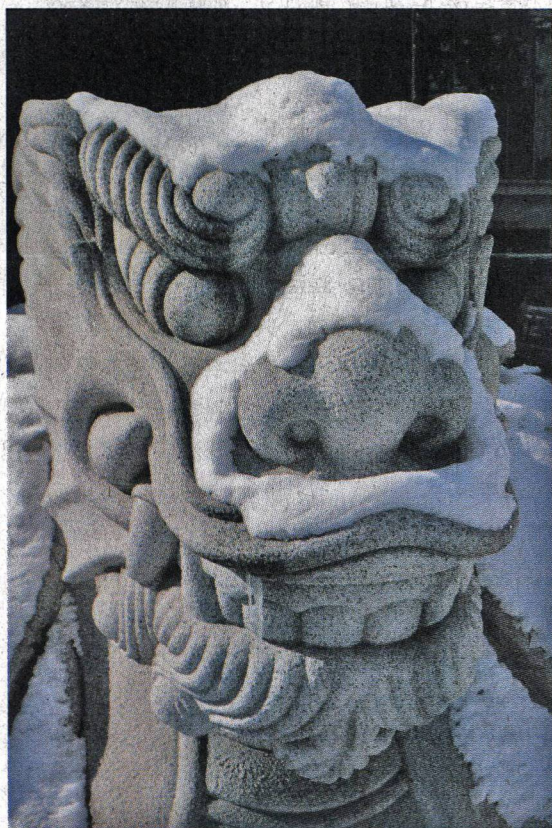


이달의 사진

거북

어쩔 고장이 있어도
묵묵히 불법을 지
키리라

사진= 김중열기자



VISUAL
불교충전

부처님의 길

중생의 길

제32화

차라리 성실하고 신의를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결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살지 말라.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울라.kr>

두 갈래 길을
만났구나.

이리갈까?
저리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두 갈래 길을
만났구나.

부름!
부름!

길이
너무
험해.

이 길이
지름길이긴
한데.

명색이
오토바이
아니냐!

지름길로
질러가자.

이쪽으로 가다간
온몸이 망신창이가
다 되겠군!
돌아가자.

신호를 무시하고
마구 질러가자.

우아악!

시간이 더
걸리긴
했어도
바로 왔다.

공!

어떤 놈이
이런 산속
까지 짜장면
배달을
시키는
거야!

나다!

정직한 길을
행하여 나쁜
일에 빠지지
않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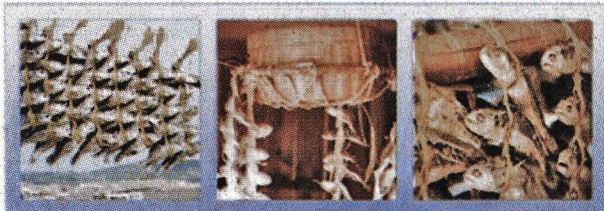
행주좌와에
편안하고 세세로
환난이 없다.

짜장면을
시켰지
누가 잡탕을
가져
오랬나?

으윽!
험한 길을
오다보니.
뺨이 성할
날이 없네.

내용참조: 불교충전 p464 정과 사의 비교

전남영광 특별한 굴비의 맛 청수굴비



영광굴비의 유래

굴비(鰯非)? 물고기 이름치고는 참 독특한 이름이죠.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요.
고려 16대 예종 때 이자겸은 그의 딸 순덕을 비(妃)로 들여서
그 소생인 인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지요.
또한, 인종에게도 셋째딸과 넷째딸을 시집보내, 중북되는 인척관
계를 맺고 이를 업고 권세를 독차지 하며 은근히 왕이 되려는 야
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최사전이 이자겸 일당인 척준경을 매수하여 체포
한 후, 영광 법성포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 지역 특산품인 굴비를 먹게 되었고,
마침내 왕에게 칠산바다에서 잡은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진상하
면서, 결코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아부자 아니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굴비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김장호)
농협 : 643045-52-114021
광주은행 : 721-121-012900

제품종류

청수 1호 1.3kg / 20마리 / 12,000원
청수 2호 1.6kg / 20마리 / 25,000원
청수 3호 1.8kg / 20마리 / 35,000원
청수 4호 2.0kg / 20마리 / 60,000원
청수 5호 2.2kg / 20마리 / 80,000원
청수 6호 2.4kg / 20마리 / 100,000원
청수11호 1.2kg / 10마리(大) / 60,000원
청수12호 1.3kg / 10마리(大) / 80,000원
청수13호 1.4kg / 10마리(大) / 100,000원
청수14호 1.5kg / 10마리(大) / 150,000원
청수15호 1.7kg / 10마리(大) / 200,000원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두드름 이상 주문 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청수4호부터 청수15호까지는 저희가 택배
부담합니다.

•제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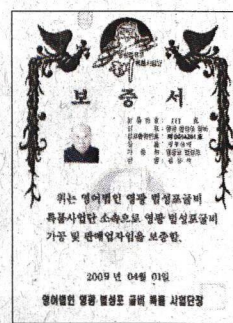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 이상 간수가 빠
진 천일염을 사용하여 염장하여 엮어서 개
곳한 물로 세척하여 법성포 해풍에 말린
후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냉동시킨 제품
입니다.
습도가 5% 이하로 낮아지는 낮에는 해풍
으로 건조되고 습도가 95% 이상 올라가는
밤에는 참조기 속속들이 들어있는 수분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육질이 숙성되는 영광
굴비는 칠산바다에 접한 법성포의 기후적 여건이 만들어낸 작품입
니다. 제품에 물기가 흐르는 것은 급속 냉동시킨 제품이 배송시 조
금 녹아서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관방법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걸어두면 변질되지 않
지만 오래두면 배에서 기름기가 배어나와 맛이 변하므로 가끔씩 녹지
않은 상태에서 끈을 제거하고 랩으로 2~4마리씩 사서 냉동 보관하
다가 1봉씩 꺼내드시면 변질되지 않으며 본래의 맛이 오래도록 유
지 됩니다.

•요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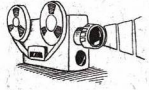
생선 굽는 그릴에 중간불에 서서히 구워야 제 맛이 납니다.
갖은 양념을 바른 후 찌거나, 매운탕을 하셔도 맛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4
사업자 등록 번호 : 410-97-06370 · 대표자 : 김동식
상담 및 문의 TEL : 061-356-2466 FAX : 061-356-2468 H P : 010-5325-8824

※ 제조된 청수굴비는 영여법인 영광굴비 특산물사업단 회원업체입니다.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포장상태는 조금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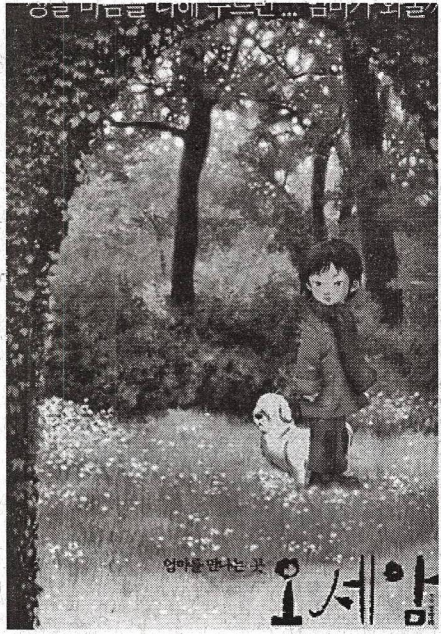
청수굴비는 법수원 기로스승의 자제 이은주 보살이 운영합니다



영화에서 불교보기 (20)

/설악산 오세암에 관한 실화 <오세암>

깊은 산중에 고립된 소년의 생존기



대전에 살 때 우리가 사는 아파트 앞에는 절이 있었습니다. 절은 아파트와 마당을 함께 사용한다 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사찰에서 만들어놓은 불상이 있어서 집으로 오가는 길엔 언제나 그 불상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우리 집 작은 애는 불상 앞을 지나갈 때는 언제나 합장을 했습니다. 신심이 돈독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불교 신자이니 이 정도는 실천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애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자전거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장 큰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나 다름없는 자전거를 잃어버렸으니 하늘이 내려왔는 것 같았겠지요. 아주 절박한 그 순간 작은 애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차장에 서있는 불상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애는 불상 앞에서 제발 자전거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집에서 가까운 학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애는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전거가 학원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애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세워놓은 것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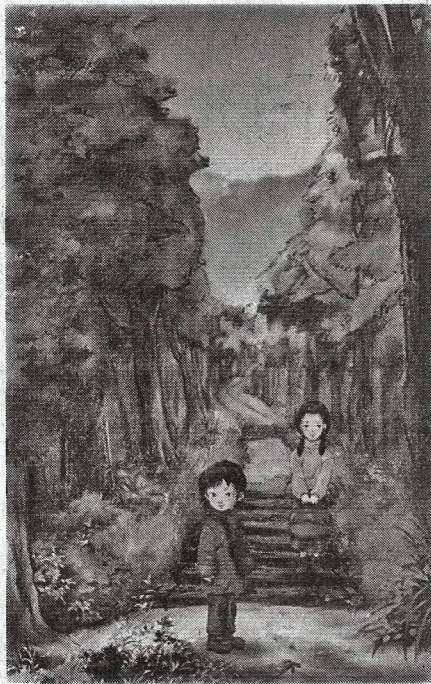
기도를 해서 자전거를 찾은 작은 애는 그 부처님을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더욱 공손한 태도로 합장을 했고, 불상 앞에 놓인 시들은 꽃에는 물도 주고 화병도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카메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번은 자전거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자전거는 자기 물건이지만

카메라는 엄마 물건으로 그럴 뉘어버렸을 때 혼날 걸 생각하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애는 다시 부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카메라를 찾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도가 끝나자 기적적으로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작은 애가 기도에 소질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험을 망친 작은 애에게 다시 한 번 기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날아온 답이 놀라웠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아는 답인데, 어린 애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자전거를 찾을 때나 카메라를 찾을 때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마음이 딱 한 곳에 모아졌는데 공부를 잘 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집중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자전거 찾을 때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성의껏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배우고 익혀서 아는 마음이 아니라 천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성은 스스로 완벽하다는 것이지요. 어른들은 세속의 때가 왔음으로 점점 천성과 멀어지는 데 반해 아이들은 허공처럼 순수하기 때문에 천성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천성이 바로 불성이고, 부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부처의 마음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천진불이라고 합니다. 천진불과 관련한 이야기는 설악산 오세암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설악산 오세암은 원래 관음암이라는 절이었는데, 이 절에서 다섯 살 소년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생명을 구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오세암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세암에서 일어난 천진불 실화는 유명한 동화작가 정채봉 씨에 의해 <오세암>이라는 동화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신선 하면서도 참신한 소재 이다 보니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재창조되었습니다. 박철수 감독은 현실참여적인 <오세암>을 만들었고, 성백엽 감독은 애니메이션 <오세암>을 만들었습니다. 김혜수가 나오는 박철수 감독의 오세암도 좋지만 여기서는 성백엽 감독의 오세암을 기본 텍스트로 했습니다. 천진불이 주인공이므로 아이들의 장르인 만화영화가 소재와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성백엽 감독의 <오세암>은 프랑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장편 경쟁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을 계기로 영화는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고, 지금도 여전히 관심 받는 애니메이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관심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감 받을만한 소재고,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자체가 유행을 타지 않는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고아 남매가 있습니다. 길손이라는 다섯 살 먹은 소년과 앞이 안 보이는 감이라는 소녀입니다. 이들은 엄마를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길손이는 엄마 얼굴도 모르지만 늘 엄마를 그리워해서 무작정 엄마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다 산길에서 두 스님을 만났습니다. 큰 절에서 사는 스님들인데 이들은 불쌍한 두 남매를 절로 데려갔습니다. 절에서 감이는 빨래도 하고 부엌일도 거드는데, 개구쟁이 소년 길손이는 말쑥만 피웠습니다. 엄마를 따라 올라온 소년들과 싸우거나 범당에 물을 쏟거나 하면서 말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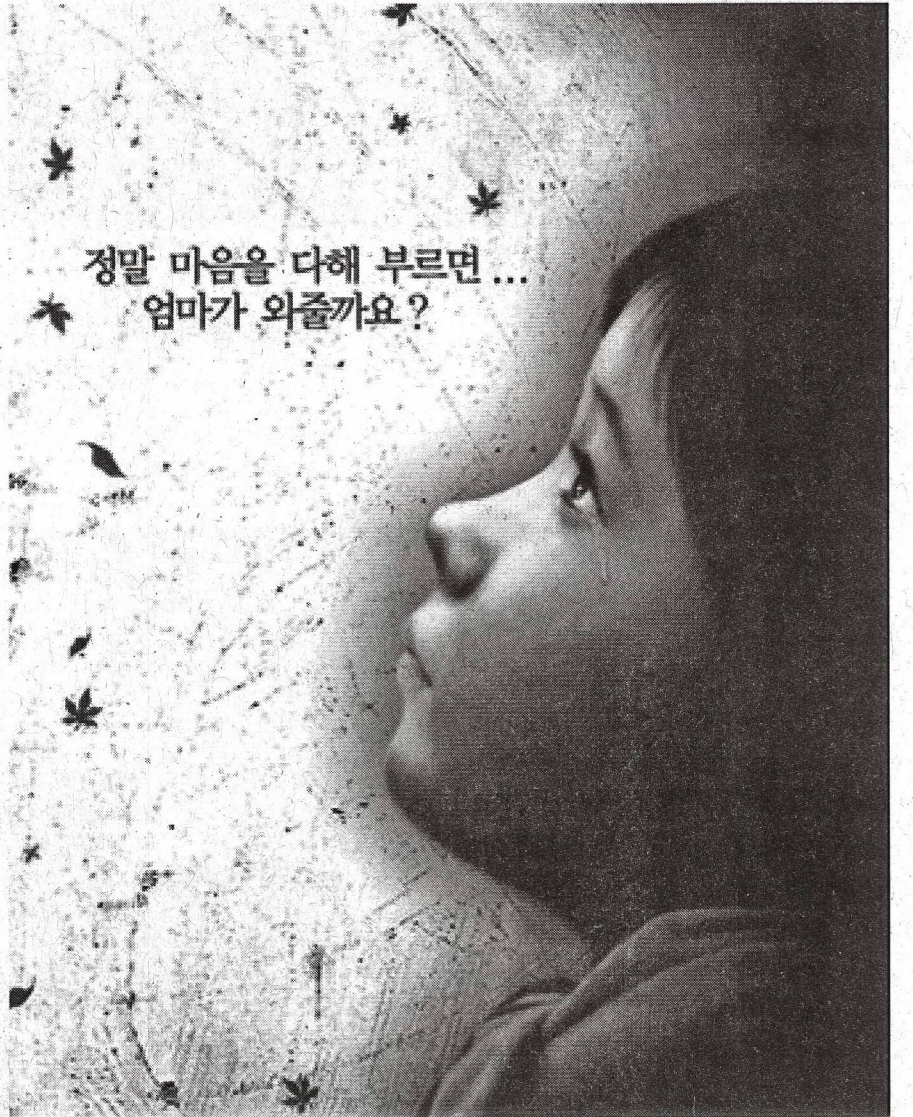
고아 남매를 절로 데려온 스님은 다른 대중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설악산 더 깊은 골짜기에 있는 오세암으로 떠나면서 길손이를 데려갈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음의 눈을 뜨면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간 길손이는 스님과 단둘이 오세암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냥 길손이를 데려갈 심산으로 한 말이었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영화 말미에 길손이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부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수행해도 잘 안 되는 일을 다섯 살짜리 소년이 해낸 것입니다. 소년의 순수함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절로 올라온 후 스님은 매일 참선만 하고, 누나도 없는 산속에서 길손이는 많이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숲속을 뛰어다니면서 토끼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다람쥐 잡으려고 나무 위도 올라가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스님이 양식거리를 구해 와야 한다면서 장으로 떠났습니다. 숲에는 주먹밥을 만들어 두었고, 혹시나 무서우면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지켜주니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라고 시키고 떠났습니다.

스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고 길손이만 절에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절에서 내려가자 갑자기 산을 뒤덮어버릴 정도의 폭설이 내리고 스님은 산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산에 혼자 두고 온 길손이가 걱정이었지만 아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구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으로 보면 이제 길손이는 죽을 운명입니다. 고립된 절에서 어린 소년이 살아남 방법은 없었을까요.

한편 홀로 남은 길손이는 이제나저제나 스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무서워지거나 외로워지면 관세음보살님 행하 앞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누나에게 하던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에게 이 말 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길손이예요" 라고 자기소개도 하고,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누가 앞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원도 말했습니다. 스님이 떠나면서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무서움에서 구해주고 소원도 들어준다고 했기에,



정말 마음을 다해 부르면...
엄마가 와줄까요?

어린 자식이 엄마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길손이는 부처님에게 의지했습니다.

우리 집 작은 애가 자전거를 찾기 위해 부처님에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처럼 길손이는 부처님에게 자기 목숨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눈이 녹고 봄이 왔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산중에 고립됐던 길손이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살아있으라고는 아무도 기대 못했는데 길손이는 살아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먹을 것도 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했다고 말하는 길손이는 여전히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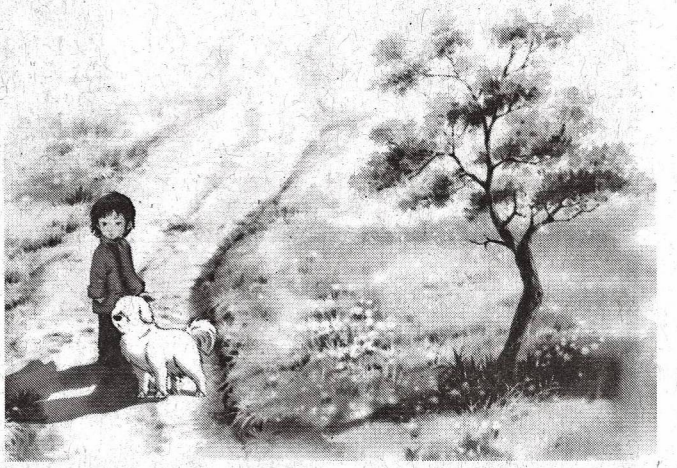
그런데 영화 <오세암>은 결말에서 설화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중생과 부처를 수직적 관계로 설정하는 영험담이 불교의 근본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불교의 본질인 '깨달음'을 강조하기 위해 성불의 과정을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누나와 스님이 도착했을 때 분명 살아있었던 소년이 돌연 죽습니다. 그때 백의관음이 나타나서 이제 소년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소년이

성불했음을 알립니다. 성불과 함께 소년은 죽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아마도 육신의 죽음을 통해 중생은 소멸하고 부처의 길에 들어섰음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했습니다. 여하튼 영화는 영험담에서 출발했지만 불교의 본질인 성불에 역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한 점 먹물도 튀지 않은 길손이의 마음은 허공과 같고, 이는 또한 부처의 마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순수한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소년은 부처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영화는 다섯 살 어린 소년을 통해 성불의 과정을 보여주는 편이었습니다.

<김은주 자유기고가>



진언행자 생활광고

주방 생활가구 전문회사 화영기업(주)

'나무촌' 관리실장 박인자입니다.

틀에 얽매인 사고가 아닌 미래지향적 창조적 사고와 신뢰만이 생존의 기틀이란 신념아래 여려 '남'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곳은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싱크대, 불박이장, 신발장 도어만 교체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문대리 299-1

상담전화: 031-983-3524, 3560 팩스: 031-983-4080

핸드폰: 011-706-4080 홈페이지: www.namuchon.com

여러분들의 노후는 든든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금, 의료실비, 종신 보험 등

여러분 개개인에 맞게 설계해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화랑대지점
파이낸셜 컨설턴트 강경민(총지사 교도)
상담전화: 017-325-4248

아구찜, 꽃게찜, 간장게장 전문점

풍원(豐源)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대접합니다.
모든 분들을 최고의 VIP로 모시겠습니다.
단체 및 연회식을 갖추고
여러분들의 모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4(오금초등학교 맞은편)

예약전화: 02-3401-5919

맞춤떡 전문 떡사랑

돌 / 백 일 / 이 바 지 / 결 혼 / 회 갑 / 개 업 / 각종행사
맛 있고, 영양 많은 떡을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e-편한 대림 센트레빌 상가 102호
임진숙(총지사 교도)

TEL : 02)897-7741
010-2387-7037

불교전문교양지

위드다르마 홍권 100호 발행



<< 특집기획 100호 >> 주요목차

- * 감사의 글 - 발행인 지성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창간인 법등 총지사 주교
- * 축하합니다 - 진각종 통리원장
토진스님 | 일간 가피 발행인, 조계사주지
지홍스님 | 일간 불광 발행인
크리스티 창 | 세계불교여성연합회 회장
김종섭 | 시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 * 특집원고 - 주제 :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1.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 의연스님
2. 긍정적 정보를 받아들이라 | 법상스님
3. 지파 염세(厭世)와 가짜 낙천(樂天) | 이민웅
4. 秀蓮華, 세 가지 질문으로 활짝 피라 | 노운경

불교총지종에서 발행하는 불교전문교양지

위드다르마는 진리의 밑거름을 올리

진리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불교총지종 위드다르마 편집부 -
구독문의 T. 02-552-1080 ~3

불교총지종 겨울스키 수련법회

불교 총지종 통리원이 주최하는 제2회 불교 총지종 겨울스키 수련법회가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대성우리조트에서 봉행되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함께 스키타고 수행하며,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스키캠프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 <편집자 주>

